



근막

갑진년 봄, 여든여섯 번째 이야기

CONTENTS

여는 글 4

학사일정 6

특집

눈떠보니 S급 세계관 최강자 아이돌이
빠른 성공을 만날 때 벌어지는 일 [요약 리뷰/결말 포함] 10

사회

오늘 밤, 이 세계에서 광고가 사라진다면 24

아장이장 나물가자 무슨나물 가자느냐 32

직업의상실 40

학내

보건결석 50

덕성의 장금이, 근장금 58

거르고 거르는 66

청년

청년 76

21세기 실패담 84

여성

두근두근 다가가기 프로젝트 94

지금부터 막을 올립니다. 102

여자 중독 110

부록

미래는 없다 120

편집후기 124

근맥 85호 결산보고 126

수습위원 모집 127

여는 글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3월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설레다가도 떠난 이들의 빈자리가 눈에 밟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건네 봅니다. 다들 잘 지내는지요.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졌던 겨울과 치열했던 편집 과정을 지나, 무사히 「근맥」 8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겹게도 여전합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을 호소합니다. 소음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학교라는 이 작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본부와 학생의 시선은 맞닿지 않고, 침묵과 외면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야 하는 말과 할 수 있는 말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해야 하는 말과 하고 싶은 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물렁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독히도 깨닫는 요즘입니다.

생각을 전해도 변하지 않고, 생각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의 가치를 되돌아봅니다. 말 잃은 언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하지 못하는 언론은 존재 이유가 사라진 텅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에는 결국 마침표가 찍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표가 찍히기 전,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일상을 지배한 미디어는 어떤지, 옷과 밥상은 멀쩡한지, 우리의 미래는 괜찮은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근맥은 안녕한지요. 이번 호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새롭고 낯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익숙하고 조금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조차 발화자가 되어본 적 없을지 모릅니다. 침묵과 소음에 덮여 목소리가 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자, 발화자가 되지 못한 무수한 '나'의 고백입니다.

이번 근맥은 새내기를 맞이하는 글인 만큼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글이 숨 돌릴 수 있는 작은 다락방이 되기를, 일시 정지 버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 부편집장 드림.

「근맥」 86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2024 1학기 학사일정

0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5	26	27	28	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 * 삼일절(공휴일)
2024.03.01
- * 1학기 개강
2024.03.04
- *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2024.03.06~03.08
- * 폐강광고
2024.03.08
- * 제2전공 신청
2024.03.08~03.29
- *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신청 정정
2024.03.11
- * 수강철회
2024.03.25~03.29

0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 * 수업일수 60일선
2024.05.02
- * 어린이날(공휴일)
2024.05.05
- * 대체휴일
2024.05.06
- *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2024.05.08~05.10
- * 부처님오신날
2024.05.15

0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 * 수업일수 30일선
2024.04.02
- * 1학기 중간강의평가(6주)
2024.04.08~04.15
- * 22대 국회의원 선거(휴무일)
2024.04.10
- * 창학 104주년 기념일(휴무일)
2024.04.19

0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 * 수업일수 90일선
2024.06.01
- * 1학기 강의평가(14주)
2024.06.03~06.10
- * 2학기 재입학 신청
2024.06.03~06.21
- * 현충일(공휴일)
2024.06.06
- * 1학기 기말고사 및 보강주(15주/16주)
2024.06.10~06.21
- * 여름방학 및 여름계절학기 개강
2024.06.24

특집

눈떠보니 S급 세계관
최강자아이돌이
빠른 성공을 만날 때 벌어지는 일
[요약 리뷰/결말 포함]

눈 떠보니 S급 세계관 최강자 아이들이 빠른 성공을 만날 때 벌어지는 일

[요약 리뷰/결말 포함]

수습위원 이주은



자고 일어났더니 새로운 방에 도착해 있다. 최고급 실크 이불과 폭신한 베개로 둘러싸인 침대. 대체 이곳은 어디지?

뿌슁뿌슁. 쿵. 창밖엔 몬스터와 날개 달린 인간들이 결투를 벌이고 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방문이 열린다. 앞치마와 프릴이 달린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와 말한다. “공주님, 일어나셨군요!” 이 세계 소드마스터인 황제가 쓰러진 딸을 걱정하느라 밤을 꼴딱 새웠단다.

어느새 침대 앞엔 거울이 놓여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금발에 벽안. 미모를 감탄할 새도 없이 여자는 손에 검을 쥐어준다. 일어났으면 얼른 나가 몬스터들과 싸우란다. 황궁 앞에 던전이 열려 피해가 장난 아니라고. 이를 해결할 사람은 유일한 S급 몬스터 조련사이자 각성자인 공주님밖에 없단다.

업적 달성

[월드 투어 전석 매진]
전 세계 54개 공연장 전석 매진
보상: 50,000 포인트

새로운 퀘스트

[솔로 앨범 백만 장 판매]
수락하시겠습니까?

YES

NO

칼을 들고 어영부영 문밖으로 향하는데, 눈앞에 상태 창이 뜬다.
뭐? 그러니까 내가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주이자 세계 유일 S급 몬스터 조련사인 동시에 초절정 인기 아이들이라고?

잠깐만. 나 분명 이런 내용의 책을 읽다 잠들었는데.

1화. 눈 떠보니 세계관 최강자



어딘가 익숙한 이 제목은 웹소설 페이지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하다. 회귀, 환생, 빙의. 줄여서 ‘회빙환’이라 불리는 장르는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에서 자주 차용된다. 셋은 비슷해 보여도 각각의 특징이 존재한다. 회귀는 주인공이 과거로 가 삶을 재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고난이 닳치기 전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자신이 겪었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가끔 그를 도와주는 도구도 등장한다. 과거로 돌아감에도 현재 뉴스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정보 및 지령을 전달하는 시스템 창 말이다.

빙의는 불행한 삶을 살던 인물이 책 속 인물이나 동시대에 사는 생똥맞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은 주로 수려한 용모와 건강한 몸을 가진 인물에게 빙의한다. 죽기 직전의 90대 노인로 바뀌는 일은 없다. 빙의 후엔 좋은 집안도 갖게 된다. 가난하고 핍박받더라도 알고 보면 세상을 구할 능력이나 황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주인공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양숙,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조력자도 등장한다.

환생도 앞선 두 가지 장르와 거의 유사한 설정을 지닌다. 불우한 삶을 보낸 주인공은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새로 태어나,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신생아의 몸으로 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행동에 제약이 있지만, 주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도 하다. 순진한 아이를 연기해 중요한 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적에게 들킬 위험 없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한다.

‘회빙환’을 관통하는 주된 흐름은 ‘현재의 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삶은 ‘망해버린’ 이전 삶에서 겪었던 결핍까지 채운다.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성은 딸바보 황제의 능력 있는 막내딸로 환생한다. 능력 있지만 집안 사정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던 남성은 재벌가 자제에 빙의한다. 주인공들은 ‘회빙환’을 통해 이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지 못했던 ‘성공을 위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 (좌) 네이버 웹소설 <베이비폭군> 표지 | (우)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포스터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 청년이다. 돈 많고 행복한 50대 남성 가장이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엑스트라 시녀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서사가 인기였다. 일명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시나리오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개천 용 서사는 더 이상 공감받지 못한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조형근은 개천 용 서사가 고도 성장기와 엘리트층을 생성해 내는 장치가 맞물려 생긴 우연이며, 근 미래에는 고도 성장 사회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¹⁾ 시대에 맞춰 공교롭게 생겨난 신화이며, 재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년은 환생, 빙의, 회귀를 통해 새로운 신화를 찾아 나선다. ‘노력’이란 서사에는 등 돌린 지 오래다.

1) 류이근,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로 불평등을 왜곡하지 마라」, 『한겨레』, 2023.12.20.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21160.html(2023.12.30. 접속).

이미 젓 먹던 힘까지 짜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는 말은 2016년엔 좀 삼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청년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노력 부족보다 어른들이 문제를 풀지 못한 잘못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 (좌) 기사 「『하늘이 감동할 만큼 노력해봤습니까?』…속상한 청년들」 ©SBS | (우) 웹툰 <피페올 남주의 엄마가 되었다> ©NAVER웹툰

2016년, 스프스뉴스 채널에 올라온 카드 뉴스는 기성세대에게 ‘이미 젓 먹던 힘까지 짜내서 노력하고 있으니 노력하란 말은 멈춰달라’고 당부한다.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악착같이 노력하던 청년들은 이제 번아웃을 호소한다. 공부, 취업, 생계 등 많은 압박을 견디다 못해 극한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33.9%에 달한다.²⁾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 현상이 ‘하이텐션(high tension·고도불안)사회’의 병폐라고 주장했다.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의 불만, 미래를 향한 불안 등이 청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³⁾

회귀, 빙의, 환생을 다루는 창작물은 시간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말끔하게 해결해 준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 기댈 수 없고 장래는 불안하기만 한 상황에서 ‘회빙환’은 시공간을 마음대로 뒤틀어 버린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과거는 되돌리고, 두려운 현재와 미래는 없애버

2)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불명.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46
 3) 윤석만.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2030」. 『중앙일보』. 2023.03.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070#home\(2024.01.14. 접속\)](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070#home(2024.01.14.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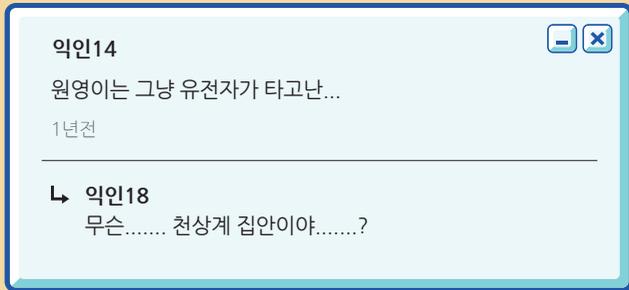
리면 그만이다. 고달팠던 삶은 버리고 세계관 최강자의 몸으로 빙의하거나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의 자녀로 환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빙환’ 작품 속 주인공의 전생은 감춰진다. 주인공의 이름, 성별 정도만 등장하며, 생김새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 짧게 묘사되는 폭력적인 남자친구, 가난한 집안 등으로 ‘불행했던 전생’을 가능할 뿐이다. 주인공이 없어진 후의 미래와 남겨진 사람들, 살던 집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지사다. 14쪽의 우측 사진은 한 빙의물 웹툰 1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난 분명히 죽었는데’라는 대사로 전생은 일촉되며, 이 외 별다른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기술되지 않는 전생은 그가 없어도 전생의 세상이 잘 굴러감을 의미한다. 그 속에서 주인공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주인공이 대기업 총수라면, 빙의 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겠는가? 돌아갈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전생의 세상도 발각 뒤집힐 것이다. 투명 인간 같던 우리의 주인공들은 ‘회빙환’ 이후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들은 이전 인생에 미련 갖지 않는다. 전생의 친구 관계, 직장, 가족은 강그리 잊어버린 채 오롯이 ‘회빙환’ 후의 행복한 삶에 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간다. 독자들도 주인공의 전생은 궁금해하지 않는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빙의해도 수긍하며 이야기를 읽어 나간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로맨스 판타지 소설 속 히로인으로 변신하는 꿈만 같은 줄거리에 이입하여 대리만족하는 것이다.

성황리에 종영했던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결말과 시청자들의 반응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기업 총수 가족의 오너리스크⁴⁾를 관리하는 비서가 살해된 후, 해당 일가 막내손자의 어린 시절로 환생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집안 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을 죽였음을 확신하고, 재벌가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복수를 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비서 시절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실력을 바탕으로 지분을 모아 최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결말에선 이 모든 게 주인공이 죽지 않고 기절한 후, 일주일간 껴뚫던 꿈이라는 사실이 공개된다. 자신을 공격했던 범인은 찾았지만, 막대한 재산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는 재벌가를 무너뜨리고 빈털터리가 된다. 이후 곳곳하게 살아가지만, 시청자에게 필요한 건 통쾌함이 아닌 권력과 행복이었다. 이들은 결말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왜 최대 주주가 되어 가장 행복할 때 끝났냐’, ‘허무하다’ ‘용두사망’ 등의 반응을 보였다. 권력과 지위, 자본이 없는 그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가 됐다. 사람들은 ‘환생 이전의 삶’이 아닌 ‘환생 이후의 행복한 삶’을 갈망한다. 처음부터 여의주 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원한다.

4) 기업 대주주와 관련된 논란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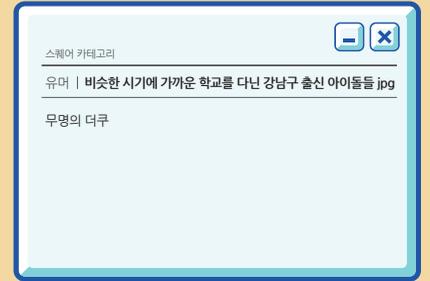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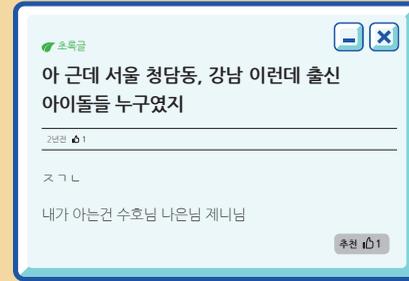
2화. 아무도 노력에 관심 갖지 않는다

신세대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장원영은 16살에 데뷔했다. 그의 별명은 ‘갓기’. 어릴 적부터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고 완성형 미모를 가진 ‘성공한 아이돌’의 표본이다. 뉴진스도 마찬가지이다. 뉴진스와 장원영에게는 특별한 노력 서사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로 여겨진다. 코스모폴리탄 칼럼 <뉴진스가 시대의 새 얼굴이 된 이유>에서 이예지 에디터는 “뉴진스는 풍요로운 집안에서 듬뿍 사랑받고 자라나 구김 없는 딸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무해’한, 시대가 가장 열망하는 얼굴이 된 것”이라며 “윤기 나고 고른 옥수수 낱알들 같은 얼굴로 말갱게 웃는 소녀들에게 부족함이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외면과 내면의 풍요가 다른 아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라고 언급했다.⁵⁾ ‘사랑받고 자란 티’와 ‘금수저’는 중요한 수식어가 된다. 그들이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춤과 노래를 연습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건 태생부터 가지고 있던 완벽함이다.



▲ 인스타그램 댓글 재구성

한 커뮤니티의 ‘장원영보다 언니가 더 이쁘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적힌 댓글이다. ‘예쁜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의 태생을 뒷받침해 준다. 꼭 뉴진스와 장원영이 아니더라도, 많은 유명인에게 ‘태생부터’라는 건 유효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 흠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완성형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미지의 누군가. 이들은 핏줄 자체를 완벽하게 만든다.



▲ (좌) 인스타그램 게시물 | (우) 더쿠 게시물 재구성

상단의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강남 출신 아이돌을 나열한 글이다. 댓글에는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동네야?”, “막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급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풍족하고 넉넉한..? 그래도 비행기 탈 때 항상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만 타는 그런 정도.. 금은 아니어도 은 이상으로 봐야 할 듯” 등 아이돌의 집안 형편을 추측하는 댓글들이 대거 달렸다. ‘000은 진짜 부족한 게 뭐냐 다 가졌네’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들의 출신지와 살던 아파트조차 능력이자, 셀링 포인트가 된다. 제니의 청담 하우스가 잘 팔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 기조와 비슷하다. 회빙환을 통해 ‘여의주 물고 시작하는 이야기’에 푹 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왜 환생했고, 회귀했고, 유명한 아이돌이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해피엔딩, 결함 없는 주변 환경, 아리따운 외모에 관심 가질 뿐이다. 성공을 위한 노력 신화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며 그들을 향한 열망과 부러움은 식은 지 오래다. 풍요로움을 숨기지 않는 이들. 몸에서 배어나는 여유와 당당함, 햇살 같은 미소, 사랑받을 티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 우리는 처음부터 성공한 이들을 선망하고 사랑한다.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이상적인 삶의 조건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학력,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명예와 권력 등을 뽑았다. 응답자 대다수가 거의 모든 조건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상적 삶을 완벽히 실현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7.2%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만’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5) 이예지. 「뉴진스가 시대의 새 얼굴이 된 이유」. 『COSMOPOLITAN』. 2022.10.12.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71482\(2024.01.14. 접속\)](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71482(2024.01.14. 접속)).

3화. 2배속으로 보는 사람들

‘태생부터’, ‘해피엔딩’ 등 과정이 아닌, 시작과 결과에만 집중하는 기조는 결국 서사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에서도 나타난다. 숏츠와 릴스 같은 1분 남짓의 영상은 어느 순간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짧은 길이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거나, 긴 길이의 영상을 짧게 편집해 올린다. 러닝타임 2시간의 영화를 20분으로 요약해 영상을 게재하고, 다시 해당 영상을 1분으로 줄여 숏폼으로 만든다. 우리는 그것마저 건너뛰기와 배속을 사용해 시청한다. 식사하거나 걸어가는 등 가벼운 장면은 영화 결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넘겨버린다. 노트북에 영상을 틀어놓은 채,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머릿속엔 아무런 정보도 남지 않는다. 기억나는 건 자극적인 장면과 영화의 결말, ‘재밌겠는데?’라는 감상뿐. 그마저도 다른 숏폼으로 쉽게 잊힌다.



▲ <“갈수록 짧다”.. 2분 대로 들어온 K팝 노래 길이> 캡처
©MBCNEWS

음악도 마찬가지다. 과거 짧게는 3분 30초 길게는 4분 30초를 웃돌았던 노래들은 최근 점점 짧아지고 있다. 4분은 고사하고 3분도 넘지 않는 곡들이 다수다. 가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완결된 노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노래가 별다른 줄거리 없이 강렬한 후렴구만 들려준다. 직관적인 단어들로 구성된 가사는 ‘서사’를 찾아내거나 해석할 필요도 없다.



Drama _ aespa ⏪ ⏸ ⏩

나로 시작되는 Drama Drama-ma-ma-ma Drama-ma-ma-ma



CAKE _ ITZY ⏪ ⏸ ⏩

다 관찰아 어때 껌이라고 난 생각해 Alright alright
왕 하고 먹어버려 다 yeah like CAKE CAKE CAKE CAKE CAKE



New Jeans _ NewJeans ⏪ ⏸ ⏩

Do you see New hair New tee NewJeans
Do you see New hair New tee NewJeans 🎵

차레대로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 있지(ITZY), 뉴진스(NewJeans)의 노래 가사다. 모두 특정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집중할 만한 점은 내용이다. 에스파는 드라마처럼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연주하고, 있지는 어려운 건 쉽게 떨쳐내자고 이야기한다. 뉴진스는 끊임없이 자신의 새로운 머리 모양과 옷에 대해 말한다. 이들에게는 밑바닥에서 올라와 매일 10시간씩 일하며 생계를 꾸린 시절이 없다. 이들이 가진 건 성공과 아름다움뿐이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 실패하는 법도 없다. 설령 낭패를 보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은 현실의 실패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화된 사회는 실패를 자력으로 이겨내도록 만들었다. 소설과 다르게 현실에는 조력자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꿀 수도, 모든 것을 노력으로 극복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 도피를 위해 가벼운 콘텐츠만을 찾는다. 콘텐츠에 긴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감정 소모 자체가 버거운 시대다. 슬픈 이야기는 보다 지치며, 50부작이 넘는 대하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한다. 행복한 결말만 쇼츠로 시청하면 충분하다. 주인공의 감정선은 이해할 필요 없다. 수도 없는 실패는 말하기도 지쳤다. 과정은 중요치 않다. 그 무엇도 진심으로 대하기는 피곤한 사회가 도래했다.

외전.



이 세계에 들어온 이후로 3년이 흘렀다. 그날, 던전에서 쏟아져 나온 몬스터를 해치운 뒤 각지의 던전을 단으러 돌아다녔다. 작년엔 서쪽 지역에서 SR급 드래곤이 나와 고생 좀 했더랬지.

s급 몬스터 조련사, 최강 아이돌, 공주로도 모자라 국민 영웅까지 된 나는 작년에 북부 대공과 결혼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그는 두 번째 월드 투어에서 처음 만났다. 오랫동안 내 팬이었다나 뭐라나. 현재는 그를 따라 북부에 와 살고 있다. 척박하고 식량도 부족하지만 혼자 곡 작업하기엔 안성맞춤인 곳이다. 대공은 나를 위해 커다란 몬스터 조련실도 마련해주었다. 마음에 든다. 지금은 다음 앨범에 들어갈 곡의 가사를 쓰는 중이다. 그나저나 빨리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마무리해야 할 텐데. 딸바보 황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대공이다.

“또 곡을 쓰고 있었습니까. 빌보드 1위 했으면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감기 걸릴까 걱정됩니다.”

“후훗, 안 그래도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께 보낼 편지를 쓰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감기라뇨. 방이 이렇게 따뜻하지만 한데. 꼭 여름처럼 매미 울음도 들리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어?

눈이 떠졌다. 내리쬐는 햇볕과 시끄러운 매미들.

여름이었다.

아, 이게 아니고.

아름답던 외모와 출중한 무예 실력, 재력, 인기 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요란하게 돌아가는 선풍기와 익숙한 침대만이 남았다.

일어나자. 학교 가야 하니까.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불명.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2046
- 류이근.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로 불평등을 왜곡하지 마라」. 『한겨레』. 2023.12.20.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21160.html\(2023.12.30. 접속\)](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21160.html(2023.12.30. 접속)).
- 윤석만.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2030」. 『중앙일보』. 2023.03.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070#home\(2024.01.14. 접속\)](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070#home(2024.01.14. 접속)).
- 이예지. 「뉴진스가 시대의 새 얼굴이 된 이유」. 『COSMOPOLITAN』. 2022.10.12.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71482\(2024.01.14. 접속\)](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71482(2024.01.14. 접속)).

사회

오늘 밤,
이 세계에서 광고가
사라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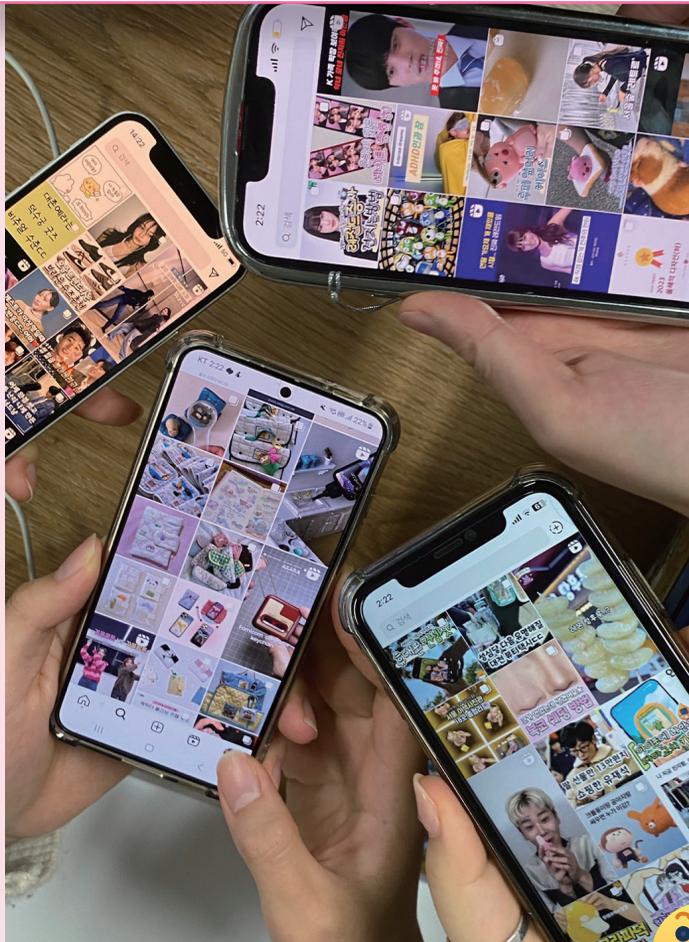
아장아장 나물가자
무슨나물 가자느냐

직업의상실



오늘 밤, 이 세계에서 광고가 사라진다 해도

수습위원 변수정



▲ 근맥인들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경험한_광고

다시 또, 3월이다. 근맥인들이 못 보던 물건들을 들고 근맥실로 돌아온다. 주은이는 신발을, 현빈 언니는 코트를, 은결이는 가방을 샀다. 안 그래도 가방 하나 새로 사려고 했는데...

회의하는 중에도 은결이의 가방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안 되겠다. 따라 사야겠어! “은결아, 너 가방 어디서 샀어?” “이거 그냥 인스타 광고 뜨는 거 산 거야. 디엠으로 링크 보내줄게.” 은결이가 사이트 링크를 찾는 동안 나는 인스타그램에 접속한다. 피드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가방이 보인다. 은결이 가방이다. 알고리즘 뭐야? 어떻게 알고 광고를 띄운 거지?

광고가 자꾸만 인스타그램 탐방을 방해한다. 대화를 엿듣고 있더라도 한 건지, 친구와 다음 주에 혜화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직후에는 혜화역 주변 맛집을 추천한다. 이제는 일일이 ‘관심 없음’을 누르기도 지친다. ‘관심 없음’을 누르기 전 잠깐, 지금 당신의 피드도 확인해 보라. 관심 있는 분야의 게시물도 있지만,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게시물도 보인다.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을 때 봤던 기본 게시물들을 떠올려보자. 극지방의 오로라와 눈 덮인 설원 사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여주는 게시물들이 떠오르다가 사라진다. 이제 피드는 알록달록한 광고와 관심을 끌기 위한 멘트로 가득하다. 문득, 광고와 당신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광고를 다시 살펴볼 최적의 시간이다. 우리는 추천 알고리즘에 당당히 자리 잡은 광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광고는 어떻게 만연해졌는가?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등장할 것인가? 휴대폰을 던져두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광고와 잠시 거리를 두자.

#TV와_광고

텔레비전 속 드라마는 30분 전에 이미 시작했지만, 어째서인지 화장품 광고가 나온다. 202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지상파의 중간광고 삽입을 허용하면서 중간광고가 삽입된 것이다. 1973년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한 뒤로 지상파는 계속해서 광고 규제 완화 및 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케이블·온라인 매체가 광고 시장을 점유하며 줄어든 광고 수익을 중간광고로 메꾸겠다는 것이다.¹⁾ 하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상파는 중간광고 대신 분리 편성 광고인 피시엠(PCM)을 만들어냈다.²⁾ 시청자는 곧바로 지상파의 ‘꿈수 광고’를 비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방통위가 분리 편성 광고를 중

1) 문현숙. 「뉴스·시사까지 쪼개는 지상파, 판치는 ‘꿈수 중간광고’」. 『한겨레』. 2020.10.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64703.html>(2024.01.26. 접속).

2) 피시엠(PCM)은 ‘Premium Commercial Message’의 줄임말로 한 프로그램의 회차를 두 개 이상 나누고, 그사이에 광고를 배치하는 형태이다. 반면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한 회차 사이에 광고를 편성한다.



간광고에 포함하고, 중간광고 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³⁾ “낮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 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기” 위한 해당 수정안은 방통위가 시청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 방송통신위원회 규제혁신 BEST 사례 카드뉴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지상파의 주요 수익원은 수신료, 재송신 매출, 광고료다. 새로운 매체가 끊임없이 생겨나며 시청자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흑자를 안겨주는 건 단연 광고료이다.⁴⁾ 견고한 자본의 벽에서 시청권은 타협의 대상이 된다. 시청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광고주가 웃을 수 있다면 그만이다. 시청자가 곧 수익으로 환원되는 구조에서, 시청자가 프로그램 방송 게시판이나 방통위 민원 게시판을 통해 불편을 호소한다고 한들 지상파는 변하지 않는다. 이미 시청자는 그들에게 하나의 자원일 뿐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법적 제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지만,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에 힘쓰지 않는다. 스스로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방송사 자체 원칙에도, 정부의 지침에도 기댈 수 없는 현실이다.

#OTT와_광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극장!’을 외치던 OTT 플랫폼마저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배속과 되감기, 일시 정지를 통해 장면을 넘길 수는 있어도 광고 자체를 넘길 수는 없다. 국내 사용자가 가장 많은 OTT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는 기존의 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광고형 멤버십을 만들었다.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베이직 멤버십(월 9,500원)’이 사라지고, ‘광고형 스탠다드(월 5,500원)’와 광고 없는 ‘스탠다드(월 13,500원)’ 멤

3) 김효실. 「지상파까지 중간광고 허용 눈앞…시청권 보호 대책은?」. 『한겨레』. 2021.04.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89938.html>(2024.01.26. 접속).

4) 이길주. 「작년 방송사업매출 18조 106억원…전년비 1.9% 늘어」. 『정보통신신문』. 2021.07.11.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43>(2024.02.13. 접속).

버십이 등장했다. ‘광고 압력 없는 콘텐츠’를 표방하던 넷플릭스⁵⁾에서 광고 없이 영상을 즐기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광고는 ‘스탠다드’가 되었다.

	변경 전	변경 후
YouTube Premium	10,450원	14,900원
NETFLIX	광고형 스탠다드 5,500원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3,500원 프리미엄 17,000원	광고형 스탠다드 5,500원 스탠다드 13,500원 프리미엄 17,000원
TVING	베이직 7,500원, 스탠다드 10,900원 프리미엄 13,900원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3,500원 프리미엄 17,000원
Disney+	9,900원	스탠다드 99,00원 프리미엄 13,900원

▲ OTT 요금 인상 표 ©전자신문

광고 없는 요금제를 택하든, 광고가 포함된 저렴한 요금제를 택하든 소비자는 플랫폼의 이익이 된다. 그리고 플랫폼은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광고 편성 시간을 늘리고, 요금제의 금액을 올릴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광고 제거를 위해 값비싼 요금제를 구매하도록 말이다. 플랫폼은 그저 편안함을 결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광고는 단순히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여 정신적으로 설득하고 제압하는 과정이다.⁶⁾ 따라서 광고는 소비자 없이 실현될 수 없으며, 더 많은 소비자를 동원하여 문화를 장악할수록 큰 힘을 얻는다. 대중은 광고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이지만, 광고가 자본의 도구로 동원되는 사회에서 광고 통제권은 광고비를 소유한 광고주의 배타권일 뿐이다. 대중에게는 참여권도,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 ‘콘텐츠 소비자’로 전락한 대중은 상품 가격에 포함된 광고비를 부담하면서도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원치 않는 광고를 접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⁷⁾ 광고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광고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객체의 권한이 뒤바뀐 것이다. 이는 노동 생산물이 직접생산자가 아닌 자본가에 귀속되는 불평등한 자본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다.

5) 김지현. 「구독자는 싫다는데, 넷플도 디플도 광고주 모시기 혈안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2023.05.19.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6844648561675283002>(2024.02.17. 접속).

6) 김승수. (2011). 광고자본주의 정치경제학. 방송통신연구, (76), 9-35.

7) 위의 글.

광고도 보기 싫고 추가 요금도 내기 싫다면 떠나면 그만이다. 당연한 논리로 자리 잡은 이 주장은 자본으로 소비자를 ‘선정’하는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은폐한다. 돈이 없으면 광고형 요금제를 구매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형편이 어렵다면 플랫폼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플랫폼은 ‘다양하게 제공된 선택지 중 소비자가 선택한다’라는 속임수를 꾸며내, 경제 수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을 소비자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치장한다. 선택할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감추고 광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결국 ‘돈이 없으면 떠나면 된다’라는 명제는 이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특정한 계층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후, 대중을 권리를 지닌 주체가 아닌 축적해야 할 자본으로 여기며 배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제외된 공간은 광고와 자본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나아갈 뿐이다.

#추천_알고리즘과_광고

플랫폼은 광고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알고리즘을 동원한다. 광고는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정교해지고 교묘해진다. 인터넷, 스마트폰, 휴대폰 등의 기억 정보저장 장치는 기록을 남긴다. ‘좋아요’와 ‘싫어요’, 다시 본 영상, 연달아 방문하는 사이트, 팔로잉 목록 등 사용자의 모든 반응은 분석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정치 성향과 종교, 취미와 대인관계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추천 알고리즘을 등에 업은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공간을 조성한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⁸⁾에 갇힌 사용자에게는 ‘좋아요’를 누르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댓글을 달고 싶은 게시물이 끝도 없이 추천된다. 새로 고침에도 추천 알고리즘은 멈추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가 탐색을 멈추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더욱 좋아할수록 더욱 분노하거나 슬퍼할수록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플랫폼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용자 동의 없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의 삶에 더욱 유연히 침투한다.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페이스북)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선택란을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활동 정보 수집을 알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⁹⁾ 사용자의 기기 정보, 검색 단어, 시청 동영상, 구매 활동 등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¹⁰⁾

8) 필터 버블은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정치 혹은 상업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의 저서 『생각 조종자들(The Filter Bubble)』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마치 알고리즘이 이용자를 다양한 정보가 차단된 환경(버블)에 갇히게 만든다고 하여 필터 버블로 불린다.
 9) 강승현, 「“구글-페북, 개인정보 무단수집해 맞춤광고”...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총 1000억원 부과」. 『동아일보』.
 10) 송진식, 「오늘도 SNS 하셨나요, ○○가 줄줄 새는군요」. 『경향신문』. 2023.07.08. <https://m.khan.co.kr/it/general/article/202307080830001>(2024.02.17. 접속).

다시 말해, 플랫폼이 당신 몰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다.



▲ SI 알고리즘의 부작용 사례 정리 ©조선일보

축적된 개인의 흔적들은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며 더 많은 이윤을 끌어다 준다. 노동자가 기업 이익에 복무하는 구조와 비슷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사용자 중 누구에게도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며, 그 누구도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항해하는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채 노동자가 되어, 기업을 위해 복무한다. ‘플랫폼 자본주의¹¹⁾에서 노동은 더 이상 의식적이고 지향적인 활동이 아니다. 노동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의지 없이, 단지 노동을 수행할 뿐이다.¹²⁾ 추천 알고리즘이 따분한 광고 대신 취향에 맞는 광고를 건넸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가? 하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처럼 포장된 상황 역시 노동자를 기업형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플랫폼의 술수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노동 착취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¹³⁾ 끝없는 노동의 대가는 무엇이었나? 플랫폼에 돌아가는 막대한 수익과, 피할 수 없는 광고뿐이다.

#우리와_광고

부당함은 충분히 느꼈다. 돈을 내고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떠나고 남는 것조차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공간, 대가 없는 노동의 연속이 부당하다는 사실 말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사익 추구는 당연하다는 건 알고 있다. 우리가 목소리 낸다고 한들 이 구조가

11) 플랫폼 자본주의는 풍부한 금융자본, 노동의 외주화, 데이터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닉 서르닉(Nick Srnicek)가 저서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에서 처음 제안하였다. (이유진, 「21세기 자본주의 세계」 플랫폼은 독일까 약일까」. 『한겨레』. 2020.05.29.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47014.html>(2024.02.18. 접속).)
 12) 김홍중. (2022). 플랫폼의 사회이론: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 통치성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41), 7-48.
 13) 박민영. (2016). 광고는 어떻게 자본에 복무하는가?. 인문과사상, (221), 124-138.

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거란 사실도 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 구조는 우리를 더욱 옳아낼 것이다.

광고가 지배한 공간은 기업과 플랫폼만의 공간이 아니다. 함께 점유하고, 함께 형성하는 공간이다. 모든 권리가 돈으로 환산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본다면, 항의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 발언의 권리 역시 자본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호하는 척하는 알뜰한 규제, 자유로운 선택을 지지하는 척하는 기업의 말에 속아 계속해서 공간을 내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 보자. 광고와 멀어진 세계를 그리며 구조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소비자이고 참여자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 자본의 논리 앞에서 무엇을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어야 한다. 어쩌면 이 상상은 소극적 저항처럼 여겨지고, 순진한 낙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광고로 둘러싸인 세계를 벗어난다면, 어떤 세상을 꿈꾸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밤, 이 세계에서 광고가 사라진다면.



#이광고를추천하는이유 #관심없음 #꿀팁 #필요없음 #근맥 #광고없음

아니 내가 오늘 우이신설선 타고 학교에 오고 있는데 옆에 어떤 덕우가 앉는 거야. 딱 보니까 개강하고 버건디 학잡 처음 입은 새내기 덕우 같더라고, 그래서 괜히 눈길이 가더라. 옆자리니까 덕우가 뭐 하는지 보이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는 거 있지? 그게 뭐였는 줄 알아? 진짜 충격적임. 너네 이런 상상 해봤어?

근맥 86호 '오늘밤 이 세계에서 광고가 사라진다고 해도' << 당장 확인해 보

참고문헌

- 권혜미. 「유튜브 최고 70% 올랐다...OTT 요금 인상 물꼬 터졌다」. 『전자신문』. 2023.12.25. <https://www.etnews.com/20231225000102>(2023.12.31. 접속).
- 김승수. (2011). 광고자본주의 정치경제학. 방송통신연구, (76), 9-35.
- 김지현. 「구독자는 싫다는데, 넷플도 디플도 광고주 모시기 혈안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2023.05.19.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6844648561675283002>(2024.02.17. 접속).
- 김홍중. (2022). 플랫폼의 사회이론: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 통치성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41), 7-48.
- 김효실. 「지상파까지 중간광고 허용 눈앞...시청권 보호 대책은?」. 『한겨레』. 2021.04.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89938.html>(2024.01.26. 접속).
- 문현숙. 「뉴스·시사까지 쪼개는 지상파, 판치는 '꿈수 중간광고」. 『한겨레』. 2020.10.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964703.html>(2024.01.26. 접속).
- 박민영. (2016). 광고는 어떻게 자본에 복무하는가?. 서울 : 인물과사상사.
- 변희원. 「인스타도 손댄다... 불신의 늪에 빠진 AI 알고리즘」. 『조선일보』. 2021.12.14.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12/14/GL02MJ7H3BETNPBIRJIRAC32MY/(2024.01.27. 접속).
- 송진식. 「오늘도 SNS 하셨나요, ○○가 줄줄 새는군요」. 『경향신문』. 2023.07.08. <https://m.khan.co.kr/it/it-general/article/202307080830001>(2024.02.17. 접속).
- 이길주. 「작년 방송사업매출 18조 106억원...전년비 1.9% 늘어」. 『정보통신신문』. 2021.07.11.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43>(2024.02.13. 접속).
- 이유진. 「21세기 자본주의 세계」 플랫폼은 독일까 약일까」. 『한겨레』. 2020.05.29.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47014.html>(2024.02.18. 접속).

아장아장 나물가자 무슨나물 가자느냐

편집위원 김성경



오롯이 쌀을 섭취한 기억은 아득하다. 어제 점심은 카페 라테였고 저녁은 샌드위치였다.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건 번거로운 일이 되었다. 이 외에 가끔 먹는 건 마라탕과 떡볶이, 햄버거. 머리와 혀가 짜릿해지는 음식들이다. 카드 출금 내역은 편의점과 카페가 가장 많다. 삼각 김밥과 커피 없이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식습관인데 이상하게 속이 불편한 날이 많아졌다. 햇반에 카레, 김치면 나름 영양소를 챙긴 것도 같은데 이상하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 어찌면 정말일까? 한국이 만들어 낸 밥상이 테올로기에 걸려든 건 아닌지 가끔 의문이 들지만, 밥을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것 같다. 때때로 속이 허한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 말고 따뜻한 밥과 국, 채소와 소담한 반찬을 먹고 싶다. 아삭아삭하고 신선한 즙이 나오는 그런 것들. 배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 속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먹고 싶다.

봄에 먹는 것들 - 달래장과 시금치 된장국

봄이 오면 냉이와 쑥이 개천을 따라 자란다. 학교 화단에 올망졸망 피어난 냉이꽃과 꽃다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말랑말랑. 사실 냉이된장국은 향이 강해 잘 먹지 못한다. 조리 과정도 손이 많이 간다. 냉이를 다듬고 있자면 그냥 배달 앱을 열어 터치 몇 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진다. 쉬운 건 시금치다. 맛이 강하지 않다. 나물을 무쳐도 되지만, 국으로 끓일 때 이만한 것이 없다. 물에 육수 팩이나 육수 캡슐을 넣고 끓이다가 건져내고 된장 한 숟가락, 시금치 한 줌, 다진 마늘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톡톡. 시금치가 흐물 흐물해지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는다. 함께 먹으면 좋은 건 달래장과 김이다. 달래를 쪼쪼 썰어 간장과 고춧가루, 들기름과 함께 섞어준다. 바삭바삭 구운 김에 밥과 달래장을 올린다. 밥 한 입, 국 한 숟갈. 밥 한 입, 국 한 숟갈. 고소한 김과 알싸한 달래가 먹을 때마다 코끝에서는 봄 냄새가 간질간질하다.



남은 달래는 처리하기 어려우니 친구와 절반 나누거나 화분에 심는 게 좋다. 달래를 나눠가질 친구를 찾는 건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무엇도 어렵다면 많이 만들어 재워 두고 달걀 프라이와 비벼 먹는다. 짜지 않게 만들면 듬뿍듬뿍 올려 먹을 수 있다. 계속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이렇게 썰고 저렇게 익히고. 오랜만에 하는 요리이니 싱크대도 쓱쓱, 가스레인지도 싹싹. 겨울 먼지도 탁탁 털어내고 다시 침대에 벌러덩 눕는다. 할 일은 쌓여가는데 별이 너무 따듯하다. 시험을 망친 시간도, 면접에 떨어진 시간도 이미 지났다. 뭉쳐있던 마음도 별에 널 시간이다.



남은 재료 처리도, 마음 정리도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해보자. 우선은 음식 재료부터. 만약 마늘도 처치 곤란이고 된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은 양조간장과 작은 참기름만 사자. 두 개만 넣고 달래장을 만들어도 나름 괜찮다. 또 신라면에 달걀을 넣어 끓이고 참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면 참깨라면과 비슷한 맛이 난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그러니 웅크린 몸을 펴고 기지개를 켜봐.

여름에 먹는 것들 - 호박잎과 강된장

여름은 야채보다 과일이 먹고 싶어진다. 커다란 수박을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넣는다. 사각사각 베어 물면 차가운 단물이 씹을 때마다 나온다. 빨간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를 뿌려 먹어도 좋다. 아삭아삭한 상추는 어디든 어울린다. 상추가 질릴 때면 보들보들 호박잎과 짭짤한 강된장이 생각난다. 강된장은 양파 반 개, 두부 조금, 양배추 두 장을 채 썰고 기름을 두른 냄비에 볶는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간장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고추장 반 숟가락을 넣고 함께 섞어준다.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물을 두 컵 넣는다. 보통은 다시다와 멸치를 우린 물을 쓰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고 귀찮으니 그냥 물을 넣는다. 너무 되직하면 물을 더 넣고, 국물이 너무 많아 보이면 좀 더 졸인다. 싱거우면 소금을 넣고 감칠맛이 부족하면 연두를, 매운맛이 좋으면 고춧가루를 뿌리면 된다. 양배추가 없어 팽이버섯을 넣은 날도 있었고 양파만 반 개 넣기도 했다. 얼렁뚱땅 어떻게든 강된장은 완성된다. 질긴 호박잎이 싫다면 걸쭉질을 제거한다. 살짝 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게 먹고 싶다면 15분, 부들부들한 호박잎을 먹고 싶다면 20분을 찐다.

재료를 씻고 다듬는 건 품이 많이 든다. 체력과 시간이 없다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면 용기에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라면이 완성될 텐데. 면을 호로록 먹고 국물 한입 들이키면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것 같은데. 맛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러니 쉽지 않다. 어제 먹은 매운 라면에 오늘 하루 종일 배가 아팠다. 내일의 무탈한 아침을 위해 호박잎이 익기를 기다린다. 초록색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습한 팔다리는 선풍기 앞을 떠날 줄 모른다. 호박잎에 밥을 엮고 강된장을 담뱃 올린다. 입에 쑥 넣고 씹으면 칙칙 초록색 물이 나오고 짭짤한 강된장이 뒤섞인다. 고소하고 향긋하다. 먹다 보면 호박잎과 강된장 중 한쪽은 반드시 남는다. 호박잎이 남으면 그냥 된장에 싸 먹고 강된장이 남으면 밥에 비벼 먹으면 된다. 대강 밸런스를 맞추고 열심히 여름을 나면서 다시 수박을 아삭.



가을에 먹는 것들 - 고구마와 참나물

선선한 바람이 불면 뭐든 밖에서 먹고 싶다.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놓고 도시락을 먹는 것도 좋다. 창문이라도 열어두고 식사하고 싶은 날이 찾아왔다. 가을이 오면 바람도 다정하다. 끈적하고 미지근한 바람이 아닌 부드럽고 건조한 바람이다. 흔들거리는 나뭇잎 소리도 시원하다. 노란 은행잎이 살랑살랑 내려온다. 가을은 노란색의 계절이다. 은행나무, 버 이삭, 국화, 그리고 고구마. 푹푹 찐 고구마는 파근파근하고 달다.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군고구마와 찐 고구마 중에 더 맛있는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모든 고구마는 맛있다. 따뜻하게 익힌 고구마를 현미차와 함께 먹는다. 고소하고 단 가을이 배 속에 통통.



그래도 배가 차지 않는다면 밥을 먹으면 된다. 모든 게 알록달록하게 변하는 계절이 종긴 해도 어쩐지 지나가 버린 초록색이 그리워진다. 다행히도 아직 참나물이 남아있다. 우리를 기다려주는 초록 나물. 참나물은 향이 진해 밥과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참나물을 살짝 데친다. 설탕 약간과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까지 넣으면 좋지만, 없으면 간장과 참기름만으로 무친다. 제철 나물의 싱싱함을 믿고 양념을 줄여본다. 엄청 맛있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맛있는 참나물이 된다. 가끔은 잘 될 것 같지 않더라도 그저 믿어야 할 때가 있다. 엉망진창이더라도 참나물은 참나물이니깐. 향이 강한 이 나물은 따끈한 밥 위에 올려 먹는 게 가장 좋다. 가끔 변형을 주고 싶다면 비빔밥이나 나물밥으로도 해 먹는다. 살짝 쓴맛이 있는 참나물에 쌀이 찰싹 달라붙어 향긋하고 고소한 나물밥을 완성한다. 봄도 여름도 들어있는 맛이다. 계절이 바뀌는 시간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듯이 요리도 이것저것 섞여 하나가 된다. 딱 자르지 말고 적당히 뭉개면서 둘 다 맛봐야지. 나물을 밥 위에 얹어 먹어도, 함께 밥으로 지어도 다 맛있으니깐.



겨울에 먹는 것들 - 만두전골

선선한 바람이 서늘하게 바뀌고 발가락 끝이 차가워지면, 역시 따듯한 것들이 생각난다. 전기장판, 털양말, 고양이 같은 것들. 발이 시리지 않게 양말로 꼭꼭 싸매고 전기장판에 누워 고양이와 함께 녹아내리면 완벽한 겨울이다. 머리맡에는 굴을 한 바구니 가져다 두고 수시로 먹는다. 굴껍질을 벗기면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상큼한 향이 훅 감돈다. 굴마다 맛이 달라서 찜찜하게 썼다가 노곤하게 달다. 어느새 굴껍질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창밖을 보면 어라? 벌써 저녁이 성큼. 겨울은 점점 해가 짧아져 오후를 부지런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 떨어지면 추운 건 더 춥게 느껴지고 시린 곳도 더 시린 느낌이 든다.



이럴 때 생각나는 음식은 배추 만두전골이다. 보글보글 끓는 전골을 보고 있으면 겨울도 조금은 따듯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다. 겨울 배추는 단맛이 골고루 스며있다. 부드러운 배추를 만두와 함께 먹으면 적당히 단 배추와 고소한 만두의 조화가 좋다. 만두는 두부와 당면, 숙주, 유부로 만들어도 좋지만, 취향과 입맛에 맞는 걸로 사는 게 훨씬 간편하다. 냄비에 절반 정도 물을 담고 간장 두 숟가락, 소금 한 자밤으로 간을 한다. 배추를 먹고 싶은 만큼 씻은 후 큼직큼직하게 썬다. 간을 한 물에 배추를 넣고 배추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인다. 배추가 익으면 만두와 파, 팽이버섯, 청경채 등 원하는 채소를 넣고 3-4분 동안 익힌다. 마지막으로 연두 한 숟가락과 후추를 톡톡. 간장과 식초를 섞은 소스에 야채와 만두를 찍어 먹는다. 온기를 위해 끓이면서 먹어도 좋다. 다 먹고 무언가 부족하다면 밥을 말거나 칼국수로 마무리하면 된다. 배를 통통 두드리며 하루 동안 한 일을 생각해 본다. 하루 종일 누워서 보내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가도 전기장판 안은 너무 따듯하다. 조금만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야겠다. 일단 오늘은 코끝이 시리니까. 기온이 싸늘하니까. 밖에는 눈이 푹푹 내리고 바람이 스룩 부니까. 조금 더 따듯해지면, 눈이 녹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면, 그때는 꾸물거림을 멈추고 정말 일어나야지.

도전! 오늘은 나도 방구석 요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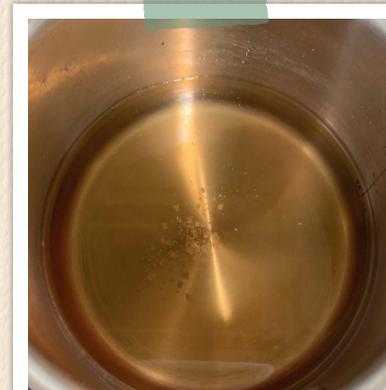
혹시 글에 실린 요리가 어려워 보였나요? 어쩌면 맛이 없을까 걱정했나요? 그런 당신을 위해 방구석에서 미리 요리를 해보았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겨울에 먹는 배추 만두전골

재료: 물 800ml, 배추 5-6장, 만두 먹고 싶은 만큼, 국간장¹⁾ 2숟가락, 연두 1숟가락, 소금 한 자밤, 후추 약간, 기타 야채(원하는 것, 파, 청경채, 팽이버섯 등)



1. 배추를 깨끗이 씻어 대강 잘라줍니다.



2. 냄비에 물 800ml를 받고 간장 2숟가락, 소금 1자밤을 넣어주세요.

1) 진간장(혹은 양조간장)을 사야 하는지, 국간장을 사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다. 국물 간을 할 때는 국간장이 알맞고 밥에 비벼 먹거나 무언가 찍어 먹을 때는 진간장이 낫다. 진간장으로 국을 끓이면 어딘가 허전하고 국간장으로 밥을 비벼거나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면 약간 짜다. 이럴 때는 선택해야 한다. 진간장으로 국을 끓이고 부족한 염도는 소금으로 보충할 것인지, 국간장으로 찍어 먹을 양념을 만들고 육수를 부어 염도를 조절할 것인지 말이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요리가 되니 너무 겁먹지 말 것.



3. 간을 한 물에 배추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4. 이렇게 투명해졌다면, 완벽해요.



5. 만두와 나머지 채소를 넣어주세요. (저는 버섯을 넣었어요.) 시판 만두는 3-4분, 직접 만든 만두는 1-2분 뚜껑을 덮고 끓여주세요.



6. 마지막으로 연두를 1스푼, 후추를 약간 뿌리면 완성이에요.



사실 매일 이런 밥을 챙겨 먹는 건 쉽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먹으면 기적일 정도다. 달걀 프라이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비벼 먹으며 그래도 밥을 먹었으니 건강은 챙긴 거라고 타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었다.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다. 그러나 밥을 잘 먹어야 체력이 생긴다. 체력이 있어야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어제도 떡볶이가 먹고 싶었고 내일은 술을 마시러 갈 거고 모레는 마라탕과 짬뽕 중에서 고민하는 삶이 기다리겠지만, 또 그사이 하루는 씩씩한 맛을 내는 무언가가, 또 하루는 몽근히 끓인 무언가가 끼어들게 놓아두어야겠다.

몽글몽글한 꿈을 꾸고 햇볕에 바삭바삭 몸을 말려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요.

직업의상실

수습위원 손나은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어떤 장신구와 머리모양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직업의상실'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곳, 직업의상실에서 당신에게 다양한 옷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옷을 부여받습니다. 동그란 모자와 하늘색 카라티, 노란색 가방을 들면 나는 민들레 유치원의 구성원이 됩니다. 키가 자라 하얀 셔츠, 남색 조끼와 넥타이, 남색 치마, 그리고 로고가 달린 재킷을 입으면 나는 덕성여고의 학생이 됩니다. 옷은 나의 소속과 신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옷을 통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주색 장식단이 달린 검정 가운은 판사를 연상시킵니다. 초록 가운과 라텍스 장갑, 마스크는 수술실 의사를, 앞치마와 위생모는 요식업 종사자를 떠올리게 하죠. 옷은 단순한 의복의 개념을 넘어 특정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여겨지며,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의상에 담긴 메시지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체성과 권위를 담은 의상



▲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의 호텔 유니폼 ©FOX Searchlight Pictures

의상은 직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다양한 직종에서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호텔, 레스토랑, 항공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는 조직의 문화와 가치를 대표하는 유니폼을 입는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에서는 보라색의 펠트 소재를 사용한 유니폼이 돋보인다. 이러한 유니폼은 조직 내 일관된 모습을 제공하며 대표성을 형성한다. “호텔을 대표하여 사과합니다”라는 지배인 구스타브의 대사는 그가 입을 복장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¹⁾ 구성원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소속 기관을 드러내는 복장이기 때문이다. 유니폼 자체가 일종의 정체성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또한 유니폼은 구성원의 자격을 증명하며 조직 내 위계를 드러낸다. 벨보이나 다른 직원들과 구분되는 보타이와 금색 배지는 지배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복장에 담긴 사회적 기호는 제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견장에 수놓아진 상징의 모양과 개수는 그들의 위계를 공고히 한다. 이러한 위계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찰 제복을 입은 이들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해석되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경찰과 일반 시민을 구분하는 지표는 복장 하나뿐이지만, 이 복장 자체가 명령을 따라야 할 당위로 작용한다. ‘질서를 유지하는 집단’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맥락을 삭제한 맹목적 명령과 복종으로 이어져 개인을 억압하기도 한다.

1) 차지현 외 2명. (2017).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 유니폼에 표현된 이미지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7). 1303-1312.



▲ 집회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
 ©(상) 세계일보 | (하) 문화일보

때로 제복은 특정 사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집회 현장에는 언제나 경찰이 있다. 미신고 집회는 물론 사전에 신고된 평화 집회, 심지어는 추모 집회에도 경찰이 존재한다. 작년 겨울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침묵 선전전 현장에는 수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되었다.²⁾ 탑승 시도와 통행 방해, 구호 재창이 없는 시위였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했다.³⁾ 당시 시위에 배치된 경찰은 역사를 가득 메울 정도였고, 경찰의 대거 배치는 마치 비상 상태를 연상시켜 긴장감을 유도했다. 또한

2) 김정진. 「4호선 혜화역 대합실서 침묵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또 체포」. 『문화일보』. 2023.12.16.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35200004\(2024.01.31.접속\)](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35200004(2024.01.31.접속)).

3) 하민지. 「사상 총 8명 대거 폭력연행...장애인 2명 병원 이송」. 『비마이너』. 2023.12.0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2\(2024.02.02.접속\)](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2(2024.02.02.접속)).

제복을 통해 공적인 권력을 얻게 된 경찰의 퇴거 조치를 목격한 시민들은 장애인 단체의 집회를 불법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들의 행동은 전혀 위법하지 않았지만, 복장이 가진 힘을 통해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⁴⁾ 이처럼, 제복은 단순히 착용자의 역할을 넘어 사회에서 작용하는 방식까지 드러낸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몸이 제복을 통해 권위를 얻고, 권위를 얻은 제복이 다시 몸에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다.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의상



©경향신문

현장 노동자의 경우, 복장의 권위보다 기능이 더 큰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작업복은 업무 수행 능력으로 직결되는 동시에 신체를 보호하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이다. 내열 장갑은 폐기물 소각열로부터 작업자의 손을 보호하고, 안전모는 공사 현장의 추락 사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며, 공업용 마스크는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작업복과 미흡한 관리로 노동자의 안전과 업무는 위협받기도 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여전히 이전 회사에서 제공한 작업용 재킷을 입는다. 현 회사가 제공한 옷이 몸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학성유의 작업복은 불씨가 튀면 확 타올랐다가 녹으면서 피부에 달라붙는다.⁵⁾ 작업복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

4) 고병찬. 「[단독] “침묵시위 체포는 위법”...전장연, 국가 상대로 소송」. 『한겨레』. 2024.01.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646.html\(2024.02.06.접속\)](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646.html(2024.02.06.접속)).

5) 김한술. 「8년 전 작업복을 꺼내입는 이유? “옷이 녹아 피부에 붙을까봐”」. 『경향신문』. 2023.06.1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90600011\(2023.12.18.접속\)](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90600011(2023.12.18.접속)).

니라, 오히려 심각한 화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철을 앞코에 덧댄 신발을 산불 진화대원에게 제공하는 것, 지하 하수처리장 노동자에게 환풍이 되지 않는 작업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니폼의 예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작업 당사자가 아닌 외부 결정자가 작업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회사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예산 문제에 밀려 반영되지 않는다.⁶⁾

당사자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상황은 이들의 사회적 위치와도 직결된다. 사회가 이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편적으로 하얀색 셔츠를 입고 일하는 지식노동자는 사회에서 대접받지만, 작업복을 입고 몸으로 일하는 육체노동자는 종종 차별의 대상이 된다. 육체노동자는 학력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과거 학교 교실에는 ‘대학가서 미팅 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라는 급훈이 걸려있었다.⁷⁾ 최근 SNS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환경미화원을 가리키며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라고 말하는 만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⁸⁾ 노동의 특성을 그들의 능력과 연결하며 차별하는 혐오적 시선은 사회로부터 그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무시되며,

당사자가 배제된 작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기피 직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현상이 초래된다.

차별적인 의상

복장은 직종을 넘어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대부분의 제2금융권은 여성 직원들에게 정장 유니폼을 요구한다. 신협 영남 지점에서 근무해 온 한 직원은 주로 대면 업무를 도맡는 하위 직급 여직원은 반드시 유니폼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여성 직원들은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유니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반면 남성 직원들은 하급직이더라도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셔츠와 정장을 취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심지어는 피복비로 30만 원을 받는 혜택도 누린다.⁹⁾ 이러한 불평등은 여성을 특정 역할에 국한하고, 대상화하는 시각과 연결된다. 작업복에는 기업이 바라는 집단의 정체성이 투영되지만,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는다.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질과 결합하며 특정한 옷차림으로 부과될 뿐이다.



▲ (좌) 신협은행에서 여성 은행원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 ©경향신문 | (우) 남여구분이 없는 항공사 유니폼 ©에어로케이 인스타그램

유니폼 형태가 고정되고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대상화되는 이유는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는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일터에서 착용하는 복장 역시도 성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항공사는 여성 승무원에게 쪽 짙 머리와 스카프, 딱 맞는 상의와 치마를 요구한다. 이러한 옷차림은 기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6) 강한님. 「[커버스토리④] 사장님! 저희 작업복 30분만 입어보세요」. 『문화일보』. 2021.10.11.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24>(2023.12.31. 접속).

7) 강이종행. 「대학가서 미팅 할래, 공장가서 미싱 할래?」. 『오마이뉴스』. 2005.07.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69059(2024.02.06. 접속).

8) 배상기. 「[진로예세이]환경미화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마음」. 『한국대학신문』. 2020.01.1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161>(2024.02.06. 접속).

9) 박하얀. 「치마 안 입었다고 “다리에 문신했니?”...유니폼이 보여주는 차별」. 『경향신문』. 2023.07.1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12060001#c2b>(2024.01.03. 접속).

의 업무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돌발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한다. 차별이 투사된 유니폼은 여성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드러내는 동시에 업무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성 상품화는 직업적 편견을 강화하고 유지하며, 여성이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에 놓이게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내 저가 항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을 최소화하고 직무 수행에 실용적인 유니폼을 도입하는 것이 그 예다. 해당 항공사의 승무원들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상의, 통기성이 좋은 바지, 운동화를 착용한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 성 상품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직업의상실’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의상이 기억에 남았나요? 여러 옷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의상은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직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복장은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 동시에 직업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복장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장비가 되기도 하고, 권위와 결합하여 집단의 규범을 공고하는 권력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복을 둘러싼 불평등한 권력관계,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의상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특정 직업이나 외양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별, 직업,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기반으로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직업의상실은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직업의상실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의미 있는 생각거리를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여정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강이종행.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오마이뉴스』. 2005.07.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69059(2024.02.06. 접속).
- 강한님. 「[커버스토리④] 사장님! 저희 작업복 30분만 입어보세요」. 『문화일보』. 2021.10.11.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24>(2023.12.31. 접속).
- 고병찬. 「[단독] “침묵시위 체포는 위법”...전장연, 국가 상대로 소송」. 『한겨레』. 2024.01.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646.html(2024.02.06. 접속).
- 김정진. 「4호선 해화역 대합실서 침묵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또 체포」. 『문화일보』. 2023.12.16.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35200004>(2024.01.31. 접속).
- 김한술. 「8년 전 작업복을 꺼내입는 이유? “옷이 녹아 피부에 붙을까봐”」. 『경향신문』. 2023.06.1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90600011>(2023.12.18. 접속).
- 박하얀. 「불꽃 맞고 물 뒤집어 쓰는 산불진화대원들...“‘옷 입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경향신문』. 2023.06.2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80600041>(2023.12.18. 접속).
- 박하얀. 「치마 안 입었다고 “다리에 문신했니?”...유니폼이 보여주는 차별」. 『경향신문』. 2023.07.1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120600001#c2b>(2024.01.03. 접속).
- 배상기. 「[진로에세이]환경미화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마음」. 『한국대학신문』. 2020.01.1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161>(2024.02.06. 접속).
- 진경옥. 「[진경옥의 시네마 패션 스토리] 64.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부산일보』. 2014.10.1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41010000071>(2024.01.28. 접속).
- 차지현 외 2명. (2017).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 유니폼에 표현된 이미지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7), 1303-1312.
- 하민지. 「사상 총 8명 대거 폭력연행...장애인 2명 병원 이송」. 『비마이너』. 2023.12.0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2>(2024.02.02. 접속).

학내

보건결석

덕성의 장금이, 근장금

거르고 거르는

보건결석

편집장 조현빈

여느 날처럼 등교하던 와중에 월경이 시작됐다. 찝찝한 느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예상 월경일까지 꽤 남았던 터라 그냥 질 분비물이라고 생각했다. 팬티라이너라도 차야지- 하고 들어간 화장실에서 피가 묻은 속옷과 바지를 직면했다. 급하게 휴지로 닦아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른 아침이라 주변 옷 가게는 굳게 잠겨 있었다. 학교에 거의 다 온 게 아까웠지만 다시 지하철에 몸을 싣고 보건결석을 썼다. 배란통인 줄 알았던 찌뿌둥함이 월경통이었다니, 어쩐지 분했다.

잠을 설쳤다. 어제 오후부터 배가 마구 아프더니 자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고 나 죽네. 속이 메스껍고 몸은 무겁다. 하지만 어제 보건결석을 썼으니 오늘은 학교에 가야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보건결석을 쓰는 게 아니었다. 내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예측하라는 건지. 그때 불안감이 엄습한다. 꾸물꾸물 책상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 든다.



수업은 세 개, 교수도 세 명. 어제는 그것까지 알아볼 정신이 없었다. 메일을 보내지도 못했고, 진단서를 받아오지도 못했다. 황급히 전자출결시스템에 들어갔지만, 보건결석 신청은 이미 반려되어있다. 아, 이렇게 내 보건결석이 날아갔구나. 약이나 먹자. 학교나 가자. 나도 모르는 새 깎아버린 출석 점수를 만회하려면 꼼짝없이 등교해야 한다.

‘보건결석’이라 불리는 공결제는 월경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중학교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정 사건에서 시작한다. 해당 교사는 ‘여학생이 월경으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받지 못하는 경우를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월경 결석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출결 및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제도가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월경통을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상태 혹은 질병에 걸린 상태라는 인식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배려를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¹⁾ 교육인적자원부가 권고를 수용하며 월경공결제²⁾가 시행되었으나 명확히 규정된 세부 지침은 없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교의 재량에 달린 셈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2006). 생리결석 관련 모성보호 제도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555026\(2023.12.30. 접속\)](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555026(2023.12.30. 접속)).
2) 공식 명칭은 ‘생리공결제’이다. 본 글에서는 월경을 에둘러 표현하는 ‘생리’ 대신 ‘월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월경공결제’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공결’이라는 용어 역시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서, 의미가 불명확한 행정 중심의 용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명칭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은 월경으로 인한 결석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찬곤. 『생리, 당당히 '결석'하게 해주세요』. 『오마이뉴스』. 2018.03.0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1810\(2024.01.02. 접속\)](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1810(2024.01.02. 접속)).)

2006년 국내대학 최초로 중앙대가 월경공결제를 도입한 이후,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제주대, 한양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 학기당 5회 월경 결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외대는 월경공결제를 전산화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월경 기간이라는 사적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행정 차원에서 월경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³⁾ 반면 고려대는 월경 결석을 질병, 예비군 훈련, 직계가족의 사망 등과 같은 유고결석의 일환으로 취급한다.

우리대학은 2013년 2학기에 보건결석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교내 건강증진센터에서 진료받은 후 전산상에서 보건결석을 신청하고, 센터에 재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2015년 5월부터 건강증진센터 업무량 증가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방문 절차를 삭제하고 인터넷상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⁴⁾ 2017년 2학기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보건결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의 원칙을 따르면, 보건결석은 코로나 확진이나 질병 등에 적용되는 유고결석과 달리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학기당 3회 22일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출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결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어떤 교수는 학기당 1회만 공결을 승인하고, 어떤 교수는 사전에 승인된 결석만을 인정한다. 나아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교수도 있다. 제각각 다른 처리방식에 학생은 아픈 몸을 부여잡고 강의계획서와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뒤지거나 주변에 수소문하여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교수의 재량권이 학생의 건강권보다 우선되는 상황을 논의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이성진, 「생리주기를 전산망에 입력하라고요? 대학가 생리공결제 실망설레」, 『일요신문』, 2018.08.0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5313(2024.01.02. 접속).
 4) 박소영·정혜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리공결제」, 『덕성여대신문』, 2015.09.21. <https://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5544>(2023.12.30. 접속).

도마 위 월경



월경공결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월경 외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월경공결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남학생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서강대는 F 학점을 면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학위원회에서 시범 운영 3학기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⁵⁾ 비슷한 이유로 여자대학교인 이화여대에서조차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⁶⁾ 하지만 월경의 여부 및 통증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할까? 월경공결제를 악용이라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대개 ‘불규칙한 결석 주기’이다. 결석 주기가 일관되지 않거나, 금요일과 황금연휴에 결석률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경은 28일 간격으로 3-5일간 지속되며, 21-35일 간격으로 2-7일간 지속되는 것까지 정상적인 월경 범주에 해당한다.⁷⁾ 따라서 우리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대학은 학기당 3-5회, 20-22일 간격으로 공결제 사용의 횟수 및 주기를 규정

5) 박인영, 「서강대가 생리공결제 폐지한 이유」, 『연합뉴스』, 2008.09.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0002282254?sid=102>(2023.12.20. 접속).
 6)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 주요 여자대학 중 유일하게 월경공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는 학생의 학습권, 교수의 수업권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로서 해당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해연, 「[심층뉴스] 생리공결제 도입 어렵나」, 『EUBS』, 2023.07.13. <http://eub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2023.12.30. 접속).)
 7)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출판일 불명. 표제어 『월경』,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51007&docId=927592&categoryId=51007>(2023.12.20. 접속).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월경이 '정상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통증이 단 하루만 지속되는 것도, 월경주기가 항상 규칙적인 것도 아니다. 결국 해당 규정은 '정상적인 월경'에 속하는 최소한의 건강권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악용을 막기 위해 월경의 다양성과 몸의 차이를 배제하는 것이다. 월경 그 자체에는 주목하지 않고, 악용 사례에만 집중하며 혐오를 확산하는 상황은 여성 자체를 배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몸의 경험을 근거로 형성될뿐더러, 여성과 여성의 몸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몸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혹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보장해 주는 게 어디냐며 배부른 소리라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세상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월경이 넘쳐나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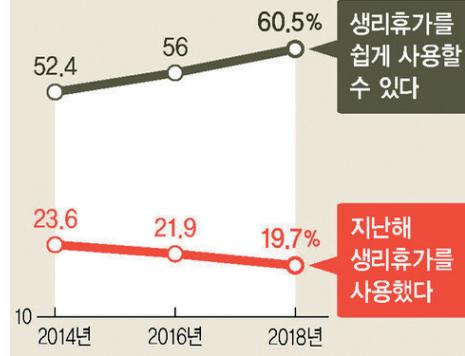
보호받지 못하는 월경

2022년 10월 이데일리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대학 중 월경공결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은 22.6%에 달한다.⁹⁾ 공결제를 시행하더라도 학교가 해당 제도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도 다수다. 서울대학교 교육환경 개선협의회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073명 중 93%가 월경공결제의 존재와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¹⁰⁾ 나아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주위 시선과 복잡한 절차에 의해 사용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진단서를 제출해도 의심하는 교수,¹¹⁾ 아파서 빠졌는데 잘 놀다 왔냐고 묻는 선배, 술자리에서 공결제에 불만을 표하는 동기들로 인해 결석은 쉽지 않다.¹²⁾ 광주의 한 대학에서는 '월경 공결을 인정하는 대신 태도점수를 감점하겠다'라는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에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¹³⁾ 이러한 상황은 비단 대학에서 그치지 않는다.

8)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210쪽.
 9) 김형환. 「아직도 자리잡지 못한 대학 생리공결제...남녀갈등까지」. 『이데일리』, 2022.10.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32496528&mediaCodeNo=257&OutLnkChk=Y>(2023.12.30. 접속).
 10) 서울대학교는 2020년 11월부터 월경공결제가 시행되었다. (김아영. 「2021 공개협 1·2차 설문조사, 그 결과는?」. 『대학신문』, 2021.09.12. <https://www.s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2>(2023.12.30. 접속).)
 11) 한재준. 「인권위 권고 12년째...갈 길 먼 대학이 '생리공결제」. 『News1』, 2017.09.13. <https://www.news1.kr/articles/?3099493>(2023.12.30. 접속).
 12) 앞의 글, 김형환.
 13) 김태원. 「"여자들 '생리공결' 쓰면 태도점수 깎는다"...남녀 갈등 불거진 대학 교수」. 『서울경제』, 2023.09.07.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LB3VQDB>(2023.12.30. 접속).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 사용을 현황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00인 이상 대리급 이상의 여성 노동자 2347명을 대상



© 한겨레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월경 조퇴 확인 절차로 보건 교사에게 교제한 월경대를 검사 받거나 친구에게 월경을 확인받으라고 요구한다.¹⁴⁾ 증빙자료로 월경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월경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직장도 있다.¹⁵⁾ 끝없는 의심, 몸의 상태를 증명하고 사생활을 밝히길 요구하는 사회의 몰이해는 여성의 건강권을 빼앗고 심리적·육체적 어려움을 가중한다.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결과, 2020년 월경 휴가를 사용한 서울시청 여성 공무원은 0.4%에 불과했고, 울산·세종·전북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¹⁶⁾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승무원들이 신청한 월경 휴가를 138차례 거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¹⁷⁾ 여성 노동자의 월경 휴가는 학교의 월경공결제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로서 강제성을 지닌다. 하지만 월경을 입증하라는 요구와 대체 근무자가 없다는 말 앞에서 권리는 무력

14) 김미향. 「"생리조퇴 하려면 생리대 검사 받아라" 황당한 학교들」. 『한겨레』, 2017.03.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5436.html>(2023.12.20. 접속).
 15) 성기평. 「"생리중이라고? 증명해봐"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 200만 원 확정」. 『우먼타임즈』, 2021.04.25.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74>(2023.12.20. 접속).
 16) 해당 지표는 2021년 4월 4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근거한다. (전진영. 「서울시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사용률 전국 최하위..."여전히 눈치"」. 『아시아경제』, 2021.03.0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413421742724>(2023.12.31. 접속).)
 17) 이재호 외 2명. 「외국은 '생리휴가'가 없다? "아프면 누구나 쉬 수 있으니까"」. 『한겨레』, 2021.04.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2777.html>(2023.12.20. 접속).

해진다.¹⁸⁾ 여성의 몸과 월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회에서 월경공결제는 ‘여성을 배려한다’는 표면적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월경공결제는 유지하지도, 폐지하지도 못하는 ‘처치 곤란 제도’로 여겨진다. ‘결석 자유이용권’¹⁹⁾이라 불리며 남용의 대명사가 되었고, 혐오와 조롱은 끊이지 않는다.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는 사회에서 공감받지 못한다.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소모적 논쟁은 여성의 몸과 월경이 공적 담론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문제로써 상정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서 말이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통증과 불편, 번거로움은 병결로 처리하거나 의사의 소명과 진단으로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증명할 필요도, 증명할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여성의 몸과 월경이 그 자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성보호라는 명분을 넘어, 스스로의 상태를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여러 상황에 밀려 유보되고 반려되는 권고가 아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말이다.

18) 김미영. 「[‘있지만, 없다’ 월경하는 노동자] ‘생리휴가’ 도입 70년, 사용자는 끊임없이 ‘입증하라’」. 『매일노동뉴스』.
 19) 2015년 부산일보에 기고된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안혜진. 「[시민기자 광장] 대학가 ‘여성 생리공결제도’는 결석 자유이용권?」. 『부산일보』. 2015.12.13.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1214000023>(2023.12.30. 접속).)

참고문헌

- 강해연. 「[심층뉴스] 생리공결제 도입 어렵나」. 『EUBS』. 2023.07.13. <http://eub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2>(2023.12.30. 접속).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2006). 생리결석 관련 모성보호 제도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555026>(2023.12.30. 접속).
- 김미영. 「[‘있지만, 없다’ 월경하는 노동자] ‘생리휴가’ 도입 70년, 사용자는 끊임없이 ‘입증하라’」. 『매일노동뉴스』. 2022.03.0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34>(2024.01.01. 접속).
- 김미향. 「“생리조퇴 하려면 생리대 검사 말아라” 황당한 학교들」. 『한겨레』. 2017.03.0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5436.html>(2023.12.20. 접속).
- 김아영. 「2021 교개협 1·2차 설문조사, 그 결과는?」. 『대학신문』. 2021.09.12.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2>(2023.12.30. 접속).
- 김태원. 「“여자들 ‘생리공결’ 쓰면 태도점수 깎다”...남녀 갈등 불지른 대학 교수」. 『서울경제』. 2023.09.07.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LB3VQDB>(2023.12.30. 접속).
- 김찬근. 「생리, 당연히 ‘결석’하게 해주세요」. 『오마이뉴스』. 2018.03.0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1810(2024.01.02. 접속).
- 김형환. 「아직도 자리잡지 못한 대학 생리공결제...남녀갈등까지」. 『이데일리』. 2022.10.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32496528&mediaCodeNo=257&OutLnkChk=Y>(2023.12.30. 접속).
- 박소영·정혜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리공결제」. 『덕성여대신문』. 2015.09.21. <https://www.dspress.org/news/articleView.html?idxno=5544>(2023.12.30. 접속).
- 박인영. 「서강대가 생리공결제 폐지한 이유」. 『연합뉴스』. 2008.09.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282254?sid=102>(2023.12.20. 접속).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출판일 불명. 표제어 『월경』.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51007&docId=927592&categoryId=51007>(2023.12.20. 접속).
- 성기평. 「“생리중이라고? 증명해봐”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 200만 원 확정」. 『우먼타임스』. 2021.04.25.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74>(2023.12.20. 접속).
- 안혜진. 「[시민기자 광장] 대학가 ‘여성 생리공결제도’는 결석 자유이용권?」. 『부산일보』. 2015.12.13.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1214000023>(2023.12.30. 접속).
- 이성진. 「생리주기를 전산망에 입력하라고요? 대학가 생리공결제 설왕설래」. 『일요신문』. 2018.08.02.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5313(2024.01.02. 접속).
- 이재호 외 2명. 「외국은 ‘생리휴가’가 없다? “아프면 누구나 쉬 수 있으니까!”」. 『한겨레』. 2021.04.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2777>(2023.12.20. 접속).
- 전진영. 「서울시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사용을 전국 최하위...“여전히 눈치”」. 『아시아경제』. 2021.03.0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413421742724>(2023.12.31. 접속).
-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 한재준. 「인권위 권고 12년째...갈 길 먼 대학가 ‘생리공결제’」. 『News1』. 2017.09.13. <https://www.news1.kr/articles/?3099493>(2023.12.30. 접속).

덕성의 장금이, 근장금

수습위원 손나은

- 오늘도 도시락 싸왔네?
- 응. 학식에는 비건 메뉴가 없어서.
- 귀찮지 않아?
- 그래도 어찌겠어.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 오늘 만두 나오는 날이었어?
- 아니, 탕수육... 또 품절이래.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맨날 품절이야? 왜 우리는 비건 메뉴가 하나도 없어?

🍴 고물가와 부담되는 학식



▲ (좌) 대학가 편의점 간편식품 매출 증가 ©MBCNEWS |
(우) 이마트에서 선보인 1,500원대 도시락. 쌀밥과 볶음김치로만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크경향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는다.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0%나 급등했다.¹⁾ 외식 물가도 마찬가지로. 학교 주변에서 밥을 먹어도 한 끼에 평균 8천 원은 나온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니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결과다. 지난 5월 편의점의 간편식품 매출은 거의 60% 이상 증가했다. 편의점은 물가 상승에 발맞춰 저렴한 도시락을 내놓고 있다. 메뉴 구성이나 영양구성이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돈을 아끼려면 어쩔 수

1) 최형석, 「3.6%... 소비자물가 2년 연속 3% 넘어」, 『조선일보』, 2023.12.30.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2/30/O2ZLKGK765AU5G50ARVMJGPOI4/ (2024.01.30. 접속).

없다. 수업이 끝난 후, 식사 때를 놓쳐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과 샌드위치, 삼각김밥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집에서 밥을 해 먹자니 식자재비가 부담되고, 요리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취생, 기숙사 식당이 없는 기숙사생, 이른 아침에 수업이 있는 통학생에게 밥을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와 식비를 공동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문화를 조성하고 쌀 소비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²⁾ 대다수의 학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해당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인기도 치열하다. 우리 대학 ‘천원의 아침밥’은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 있어야 한다. 다른 대학에서는 양도 식권을 구하는 일도 있었다.³⁾ 그러나 학생들의 호응과 달리 대학은 해당 사업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았다. 정부의 보조금은 2024년 기준 끼니 당 1,000원으로, 대학이 실질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세종대·카이스트·한국성서대 등 일부 대학은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⁴⁾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사라질지 모른다.

우리 대학 식당 메뉴 가격을 살펴보면, 떡볶이 3,500원, 마라탕과 돈가츠는 6,9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구성을 추가하거나 옵션을 변경하면 9천 원에서 1만 원을 웃돈다. 학교의 사정이 어떻든, 학생들에게 학식 가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삼육대는 모든 메뉴가 4천 원대, 동국대는 5~6천 원대다. 우리 대학과 학생 수가 비슷한 서울여대는 5천 원에서 1만 원대로 가격대의 편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교직원 식당, 기숙사 식당, 기타 입점 식당 등 학생을 위한 다양한 식당이 개방되어 있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2)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4.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JmJzJTJGaG9tZSUyRjc5MiUyRjU2NjlyNSUyRmFydGNsVmlldy5kbyUzRg%3D%3D>(2024.01.31. 접속).

3) 엄현식. 「대학생 90% 만족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일부 축소·중단 고심...지원 부족 영향」. 『핀포인트뉴스』. 2023.10.26.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10>(2024.01.31. 접속).

4) 백경서. 「학생 열광한 ‘천원 아침밥’&정부 지원 늘려도 대학은 “관둘래”」. 『중앙일보』. 2024.01.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066#home>(2024.01.31. 접속).

11 불안정한 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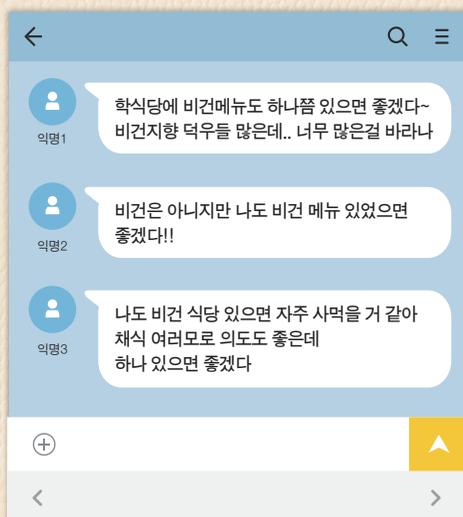


▲ 덕성여대 학생 식당에서 판매 중인 음식

부담스러운 학식 가격과 메뉴 다양성 문제가 한창 제기될 무렵, ‘오늘의 메뉴’가 등장했다. 오늘의 메뉴는 매일 다른 음식이 나오는 급식형 학식으로,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학생 식당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 간 이동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여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운영 초기, 오늘의 메뉴 수요 예측은 거의 매번 실패했다. 점심시간에 가도 음식은 품절되어 먹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사전 공지 없이 식단표에 표기된 반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감자전이 만두로, 아이스크림이 미니 붕어빵으로 변경되었고, B 메뉴 대신 A 메뉴가 제공되기도 했다. 이러한 임의적인 운영 방식에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율배식이 아닌 국은 배식량이 일정하지 않고, 고기의 잡내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칸이 나뉘지 않고 평면으로 된 반찬 접시로 인해 여러 반찬이 뒤섞이기도 했다.

학생들의 아쉬움은 오늘의 메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2년 2학기부터 돌연 운영을 중단한 해장국 코너는 여전히 자리만 차지한 채 대체되지 않고 있다. 마라탕 코너 음식의 부수 재료가 매일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더욱이 동일한 메뉴임에도 맛이 일정하지 않아 학생들은 식사에 불편함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과 물가상승은 학식소비를 망설이게 한다.

🍴 찾아야 할 권리



덕성여대에서 다양한 식습관에 맞는 음식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비건 음식이나 할랄 음식은 애초에 학식 메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년 전인 2021년까지는 샐러드(삶은 달걀 기본 제공), 직화 콩고기 덮밥을 비롯한 채식 메뉴가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덕성여대 영양사는 2023년 1학기에 비건 학식을 시도한 적 있었지만, 수요가 없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콩고기 등 대체육 가격이 수요에 비해 높아 학생 식당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비건식을 구성하는데 대체육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해당 노력이 단발성 시도로 그쳤다는 점에서 학교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 (좌) 동국대 학식당. 비건 식당인 '채식당'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다. | (우) 모든 음식이 콩으로 대체된 삼육대 비건 학식 메뉴 ©유튜브 ootb STUDIO

우리 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학교 식당 업체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비건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동국대와 삼육대 캠퍼스에는 비건 식당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국대의 비건 식당인 '채식당'에 방문했을 때, 해당 식당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비건 뷔페인 '패컬티식당'과 비건 간편식을 판매하는 '소담'에 들렀으나, 곧장 발길을 돌려야 했다. 패컬티식당은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소담은 2023년 1학기부터 10월 초까지 드문드문 운영하다가 현재는 아무런 공지 없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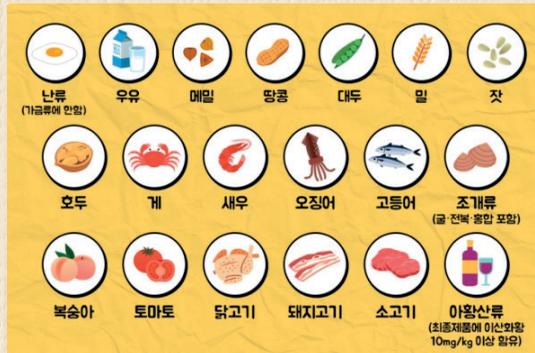
비건을 포함한 채식은 단지 기호를 넘어 권리와 이어진다. 한국채식연합은 국내 채식 인구가 2008년 15만 명에서 2022년 20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⁵⁾ 채식의 이유는 다양하다. 환경보호와 동물보호, 건강과 종교적 이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채식주의자가 된다.⁶⁾ 그러나 학교는 채식 식단을 구성하지 않아 다양한 정체성과 식습관을 가진 학내 구성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영양분과 알레르기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학생 식당 키오스크에는 음식 성분표가 없다. 식당 내에도 별도의 안내문은 없다. 학생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음식을 선택하기 전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당에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성분표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지난 5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⁷⁾를 급식 정보에 표기

5) 양길모. 「국내 채식인구 200만명... 유통가에 부는 채식 열풍」. 『브릿지경제』. 2023.09.09. [http://m.viva100.com/view.php?key=20230903010000513\(2023.12.30. 접속\)](http://m.viva100.com/view.php?key=20230903010000513(2023.12.30. 접속)).
 6) 이금숙. 「왜 채식해요? 10명 중 7명 '이런 이유」. 『헬스조선』. 2022.06.06.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60302114\(2023.12.30. 접속\)](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60302114(2023.12.30. 접속)).
 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식품은 우유, 메밀, 땅콩,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등 12가지가 해당된다.

하고 사전에 알리도록 바뀌었지만, 이 법은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된다.⁸⁾ 알레르기 식품을 제외한 음식 성분표 작성 역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대학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면 음식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

우리 대학에서 시행한 ‘천원의 아침밥’ 식단표 하단에는 부속 재료와 알레르기 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음식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요일	월	수	목	금
달력	10월15일	10월17일	10월18일	10월19일
조식	조용어떡볶이 (우육·호주산)	돈까스카레덮밥 (돈육·국내산)	치킨샌드위치 (계육·국내산)	닭강정 (계육·국내산)
	치킨샌드위치 (계육·국내산)	계란후라이 (계란·국내산)	우동국 (우육·국내산)	흑미밥 (쌀·국내산)
	배추김치 (배추·중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방울토마토, 그린샐러드 (양상추, 비터민, 치커리, 방울토마토)	포도단무지	석박치
아래표기정보	1,15.16	1,25.6,10.12	1,5.15	15
조식	10월23일	10월24일	10월25일	10월27일
	치킨떡볶이 (계육·국내산)	양양 닭국 (계육·국내산)	돈까스카레덮밥 (돈육·국내산)	조용어떡볶이 (우육·호주산)
	우동국	흑미리얼종류떡	계란후라이	치킨샌드위치 (계육·국내산)
아래표기정보	1,5.15	1,5	1,25.6,10	1,15.16

①난류 / ②우유 / ③메밀 / ④팥콩 / ⑤대두 / ⑥밀 / ⑦고등어 / ⑧게 / ⑨새우 / ⑩돼지고기 / ⑪복숭아 / ⑫토마토 / ⑬아황산염 / ⑭호두 / ⑮닭고기 / ⑯소고기 / ⑰오징어 / ⑱조개류, 홍합, 전복, 모합, 잣

▲ (위) 알레르기 유발식품 ©식약처 블로그 | (아래) '천원의 아침밥' 식단표 ©덕성여자대학교 홈페이지

8) 조채희, 「알레르기 유발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공지」. 『연합뉴스』. 2013.08.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14870?sid=102\(2024.02.02. 접속.\)](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14870?sid=102(2024.02.02. 접속.))

이러한 문제는 학식 업체와 학생 간의 소통 부재와도 이어진다. 현재 학교 식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아,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정리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의견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며, 답변하는 담당자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어느 날은 학생지원과에서, 어느 날은 총무과에서, 또 다른 날은 식당 측에서 답변한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소통 방식은 우리의 요구사항과 불만이 학교나 관련 업체에 충분히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학교에 담당자를 물었을 때, 그 어떤 관계자도 어디로 연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전화가 다른 부서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발신의 목적을 밝혀야 했다. 겨우 한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그마저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결국 짧은 인터뷰는 대행업체의 한 계로 학교와 업체 간의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

이처럼 학교와 대행업체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할 때, 소통 창구마저 없다면 학생들의 권리와 편의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요구 반영 이전에 단순한 궁금증마저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은 이제 밥 하나를 사 먹는 데도 부담감을 느낀다. 학생식당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질 좋은 음식을 한 끼 먹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식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식과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백경서, 「학생 열광한 '천원 아침밥' & 정부 지원 늘려도 대학은 "관둘래"」. 『중앙일보』. 2024.01.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066#home\(2024.01.31. 접속.\)](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066#home(2024.01.31. 접속.))
- 손재철, 「무턱대고 싸게 좋은걸까요? 1500원대 도시락 시장 경쟁」. 『스포츠킨경향』.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304060710003&sec_id=561901&pt=nv\(2024.01.31. 접속.\)](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304060710003&sec_id=561901&pt=nv(2024.01.31. 접속.))
-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5.04.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8JTJGyMjZlJGAg9tZSUyRjc5MiUyRjU2NjlyNSUyRmFydGNsVmldy5kbyUzRg%3D%3D\(2024.01.31. 접속.\)](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8JTJGyMjZlJGAg9tZSUyRjc5MiUyRjU2NjlyNSUyRmFydGNsVmldy5kbyUzRg%3D%3D(2024.01.31. 접속.))
- 양길모, 「국내 채식인구 200만명... 유통가에 부는 채식 열풍」. 『브릿지경제』. 2023.09.09. [http://m.viva100.com/view.php?key=20230903010000513\(2023.12.30. 접속.\)](http://m.viva100.com/view.php?key=20230903010000513(2023.12.30. 접속.))
- 엄현식, 「대학생 90% 만족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일부 축소·중단 고심...지원 부족 영향」. 『핀포인트뉴스』. 2023.10.26.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10\(2024.01.31. 접속.\)](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10(2024.01.31. 접속.))
- 이금숙, 「왜 채식해요? 10명 중 7명 '이런 이유'」. 『헬스조선』. 2022.06.06.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60302114\(2023.12.30. 접속.\)](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2060302114(2023.12.30. 접속.))
- 조채희, 「알레르기 유발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공지」. 『연합뉴스』. 2013.08.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14870?sid=102\(2024.02.02. 접속.\)](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14870?sid=102(2024.02.02. 접속.))
- 최형석, 「3.6%... 소비자물가 2년 연속 3% 넘어」. 『조선일보』. 2023.12.30.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2/30/O2ZLKGK765AU5G5OARVMJGPOI4/\(2024.01.30. 접속.\)](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2/30/O2ZLKGK765AU5G5OARVMJGPOI4/(2024.01.30. 접속.))
- MBCNEWS. (2022.07.09). 점심값 1만원 시대...1700원에 편의점에서?[뉴스.zip/MBC뉴스] [영상].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LPc5PqSWXQ\(2024.01.30. 접속.\)](https://www.youtube.com/watch?v=HLPc5PqSWXQ(2024.01.30. 접속.))

거르고 거르는

편집위원 김성경

“그건 좀 위험할 것 같아.” 근맥 회의 날. 아이템¹⁾을 들고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다. 세상 좀 바꿔보자고 언론 기구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위험을 이유로 기사를 쓰지 않겠다니 환상이와장창 깨진다. 분란도 비난도 싫어 선택받지 못할 위험한 아이템 대신 조금 재미있고, 귀엽고, 적당히 공감받을 아이템을 가져갔다. 조금의 비판을 곁들여 기사를 채웠다.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세상살이가 외롭고, 콘텐츠가 유해하다는 등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1년 동안 열심히 썼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디선가 한 번은 들었던 이야기, 다수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다.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을 말하기에는 능력도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위험하다는 말

위험하다는 말은 만능이다. 어디에나 쓸 수 있고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아이템 회의뿐만 아니라 발간 전 과정에서 위험하다는 말은 수시로 튀어나온다. 개요를 쓰면서, 글을 첨삭하면서, 마지막 교정을 볼 때까지 위험 요소는 끊임없이 생겨난다. 이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는 의견, 정치적 발언, 자료가 너무 방대해 찾기 어려운 주제, 일반적인 여론에서 벗어난 시각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논문과 기사를 근거로 쓰지 않는 문장과 오류를 전부 보완할 수 없는 주장 역시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

1) 기사로 쓸 만한 주제를 아이템이라고 부른다.

누군가 위험하다는 말을 꺼내면 그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문다. 책임질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 없기 때문일까. 무언가 설명하고 싶지 않은(혹은 설명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위험은 피해 가야 할 요소이지 부딪혀 싸워야 할 요소가 아니다. 쉽게 수긍하고 쉽게 단념한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애초에 내지 않는 게 좋다.

언제는 타자화가, 언제는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근맥 회의를 준비할 때면,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보다는 공격받지 않을 아이템, 사라지지 않을 아이템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한데 우리가 파악하는 건 극히 일부였다. 할 수 있는 말을 찾는 게 가능할까 싶었다.

지금 세상이 요지경에 가깝지만,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모른다. 대통령은 벌써 이유 없이 8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금 거부권을 한 번 더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²⁾ 지하철 민영화와 전기·의료 민영화, 이태원 참사, 복지 예산 삭감 등 문제는 많은데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런 문장은 위험을 이유로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문장이다. 검열 후 기사는 평화롭다. 어떠한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다. 언론은 안온하고 부드럽고 말랑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언론 존립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걸 기사를 써본 사람은 안다.

정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쳐도, 검열당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석탄 발전소 이야기는 화석 연료에 관한 입장은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워 쓰지 않았다. 특정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 쓰지 못했다. 트랜스젠더에 관한 이야기는 입을 뿔 수도 없었다. 글에서는 개인적인 맥락도, 누군가의 위치성도 밝히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자료 조사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무언가를 공부하고 이해할 여력이 없었다. 내 옆자리 동료는 이미 지쳐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줄여 그들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서로 사이는 좋았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며 넘어갔다.

2)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이를 그대로 표기한다.

내가 쓴 글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열정을 불태워 아이템을 찾고 끈질기게 이 글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우리는 ‘근맥 아무도 안 보잖아’라는 말을 내뱉으며 냉소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췄다. 신입생 안내 책자에 이름 하나 실리지도 못한 우리인데, 누군가 알아주기는 할까? 이런 곳에서 열정을 태우는 건 바보 같은 일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덤비는 건 눈치 없는 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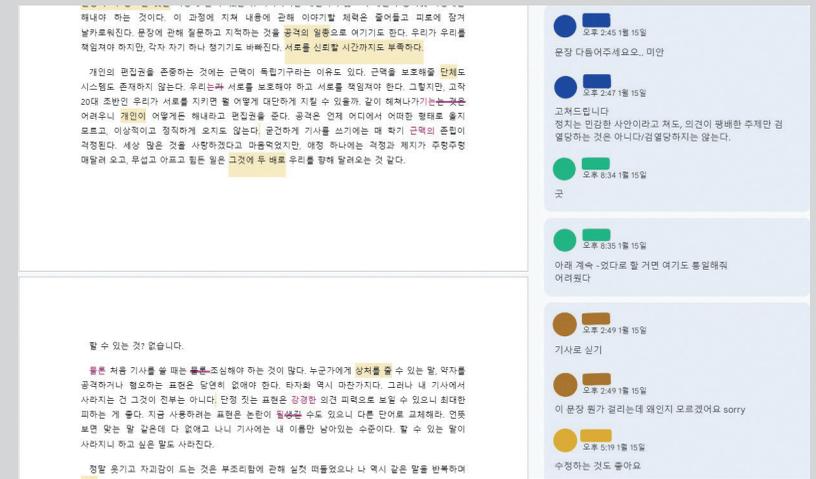
논쟁이 쓸모없는 건가? 내가 분란을 만드는 걸까? 질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글에는 주장이 있어야 했고, 주장은 객관적 지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가 느낀 것, 누군가의 진술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수치가 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자료는 의도적으로 은폐된다. 예전 특집으로 의료 민영화에 관한 글을 쓸 때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 의료 수가에 관한 안 좋은 내용만이 들려왔고 언론은 민영화에 관해 긍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이 외에도 바이오 자료와 민영화의 연관성, 활용 방법에 관한 정보 수집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틀릴지도 모르는 생각을 쓰는 건 일기장이나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할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글의 족쇄가 됐다. 글은 생각과 의견을 담는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지만, 사실은 내 의견과 일치하는, 글에 유리한 자료일 뿐이다. 사실을 작성한다고 해도, 왜곡과 오해, 해석을 통한 재진술일 수밖에 없다. 오류도 없고 객관성을 잃지 않는 글, 그런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검열의 끝

검열에 종식은 없다. 단지 발간을 앞두고 지친 우리가 대중 타협하는 것뿐이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 최소 3개에서 5개의 아이템을 가져와야 한다. 최근 3개년 근맥에 실렸던 아이템은 가져갈 수 없으며, 시의성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회의 후 집에 가면 12시가 되어간다. 종강 후 모든 아이템을 취합해 최종 기사 아이템을 선정한다. 회의 이후에는 기사 작성과 퇴고의 반복이다. 대략 8페이지의 기사를 작성해 가면 오전 10시에 모여 오후 10시까지 첨삭 후 헤어진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마감이다. 이후 디자인 사무실에 원고를 넘겨 교정을 본다. 여기에 토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기존에 작성된 글과 다른 의견을 내면 첨삭이 한 번 늘어나고, 마감은 며칠 늦어진다. 토론과 논의가 중요해도 발간이 우선이다. 마지막 교열을 보러 갈 때면 반쯤 포기한 상태가 된다. 참고문헌 양식 정도는 검토하지만, 기사 내용을 바꾸기는 이미 늦었다. 편집권을 핑계로 존중해야 할 때와 논의가 필요할 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개인의 몫으로 넘겨버린다. 위험한 덩어리들은 이미 잘라냈으니 커다란 실수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과 여기까지 와서 뭘 더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귀찮음이 우리의 침묵을 완성한다.



▲ 온라인 첨삭 과정

침묵 속에는 각기 다른 능력에 관한 힐난이 포함된다. 우리의 능력치가 전부 비슷한 수준인 건 아니다. 그러나 대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1-2개의 기사를 쓴다. 기사의 내용, 방향, 표현 등 한 기사를 통괄하는 독립된 편집권을 갖는다. 언뜻 보면 수평적이고 낭만적이나 실상 개인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시스템이다. 자료 조사, 각주, 기사 방향을 각자 해결해야 한다. 누군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누군가는 문장 전개 능력이 떨어진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지만, 자료 조사부터 기사 작성까지 협업할 자신도 없다. 그렇기에 이 모든 걸 편집권(을 방자한 방치권)으로 무마한다.

다른 시각은 생각의 차이를 만들고 문장의 간격을 벌린다. 이는 학기 중 다양한 공부, 토론, 글쓰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과 대외활동,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내려놔야 한다. 지금이 교내 활동 하나에 그렇게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대인가? 시대 탓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능력과 시야의 차이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으니 개인이 능력껏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일이 된다. 이 과정에 지쳐 내용에 관해 이야기할 체력은 줄어들고 피로에 잠겨 날카로워진다. 문장에 관해 질문하고 지적하는 것을 공격의 일종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하지만, 나 하나 챙기기도 바빠진다.

책임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교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근맥의 위치는 애매하다. 기사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자치 기구 형태를 선택했지만, 교지는 이제 사회를 고발하거나 흔들 만큼 영향력 있는 매체가 아니다. 검열은 어떠한 상황으로부터의 위협이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을 상정해 잘라낸다. 상황이나 결과를 만들 수 없는 단체를 검열하는 사람은 없다. 잊힌 언론 기구에게 세상은 해야 할 일을 주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 특별한 목적도 없다. 의견을 구하거나 다른 모델을 참고하기도 어렵다. 독립된 편집권은 길 잃은 단체가 줄 수밖에 없는 권한이다.

이 시대에 책을, 하물며 교지를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던 80-90년대 대학 언론이 아니다. 목표도 정체성이 뚜렷하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이제는 근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 동아리로 지칭한다. 함께 싸운 적이 없어 동료가 될 수 없는 친구들이 남았다. 한바탕 싸움이 끝난 이후 방향하는 용사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 정해야 하는 건 외롭다.

이런 독립 언론은 보호해 줄 기관이나 시스템이 없다.³⁾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기에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작 20대 초반인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건 쉽지 않다. 편집권은 각자도생의 다른 말로도 사용된다. 같이 헤쳐 나가는 건 어려우니 스스로 어떻게든 해내라고 편집권을 준다. 공격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정직하게 오지도 않는다. 굳건하게 기사를 쓰기에는 매 학기 근맥의 존립이 걱정된다.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애정 하나에 걱정과 제지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3) 오로지 학생들의 사랑과 관심뿐!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무관심이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며 파생된 현상이다. 물론 처음 기사를 쓸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많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 약자를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타자화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삭제된 건 그뿐이 아니다. ‘단정 짓는 표현은 의견 피력으로 보일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이 표현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다른 단어로 교체해라.’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다 없애고 고치니 기사에는 내 이름만 남아있는 수준이다.

정말 웃기고 자괴감이 드는 것은 부조리함에 관해 실컷 떠든 나조차 현재를 유지할 궁리만 한다는 것이다. 수습위원이 들어와 아이템을 가져오면 논란거리는 없는지 우선 살펴본다. 그 후 첨삭을 아주 꼼꼼히 해야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아이템은 ‘위험하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거르고 거른다. 이제 활동도 끝나가는데 굳이 굶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다. 아, 이전 언니들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애정은 있지만, 연대까지는 조금 오바인 것 같은 마음. 연대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나는 빠졌으면 하는 마음. 현실적이고 웅졸한 마음은 너무 강력해서 이기기 쉽지 않다. 나 역시 이 마음에 쉽게 진다.

이제는 회의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아이템을 가져간다.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해도, 발간일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박수받을 만한 소재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멋진 일을 해내려 했지만, 글은 내 마음대로 써지지도 않고 나의 지식은 너무 얕다. 그래도 쓰라고 하니 쓴다. 누군가와 피의 맹세를 나누지도 않았고 계약서 한 장 쓴 적 없지만, 무슨 의미라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쓴다. 사막의 신기루보다 희미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어쩌면 그래서 이야기가 찾아오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해야 할 이야기도, 비위를 맞추는 이야기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글을 고치면서 소외당한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마감일을 보고 달렸다. 글 쓰고 첨삭하느라 한 달짜리 배낭여행을 한 번도 못 간 게 아쉬웠다. 진지하거나 열정적일 수

없어 뒤편으로 치워둔 가치들은 오랜 시간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할 수 없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난 것이다.

그 누구도 근맥을 찾지 않을 것 같아 침묵하고 이미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 것, 누군가 동조할 이야기만을 찾아온다. 필요한 이야기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근맥은 1년에 2번 무사히 발간되었다. 근맥은 지켰으니 큰 목표는 이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목격하고 듣고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을까?

마지막 고백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야기의 끝은 놀랍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맥의 이름을 빌려 썼으나 언젠가 한 번은 봤을 법한 권태와 비겁함에 관한 이야기다. 별다른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명 의식과 정의가 내 안에는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무언가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을 내려다봤다. 막상 내가 본 세상을 글로 쓸 수도 없는 주제에 말이다.

좁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의 크기를 말하기는 어렵다. *내 몸집보다 크고, 올라서기 힘들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안 난다.* 느끼고 생각한 대로 단편적인 기사를 내놓았다. 언론은 완전무결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약자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오류를 바로잡지도 않았다. 연대와 지지가 필요한 일에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새로운 변화가 두려웠고 그로 인한 실패와 반발이 무서웠다. 현상만 유지하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어찌하면 조금 사랑했다.

겁쟁이처럼 도망친 와중에 근맥이 여전히 존재하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지 못했고, 글을 쓰는 태도가 올바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흘러가며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되고 편협한 시각이 담긴 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다. 10년 전 근맥 기사를 읽으면 여성 혐오적 요소가 많아 우리조차 웃고 있다. 물론 우리가 건넨 질문이 언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비겁하고 부조리했음을 부정하지도 않겠다. 망설임조차도 상처가 될 때가 있다. 우리의 행동이 그랬다.

대학 생활을 불사하며 글을 쓰진 않았지만, 적어도 근맥이 존재하는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돌려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쓰는 방법은 모르니 그냥 쓴다. 우리의 작은 세상은 붙여 모으면 조금 더 큰 세상이 되고 그 세상 속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앞으로 우리가 쓸 이야기는 그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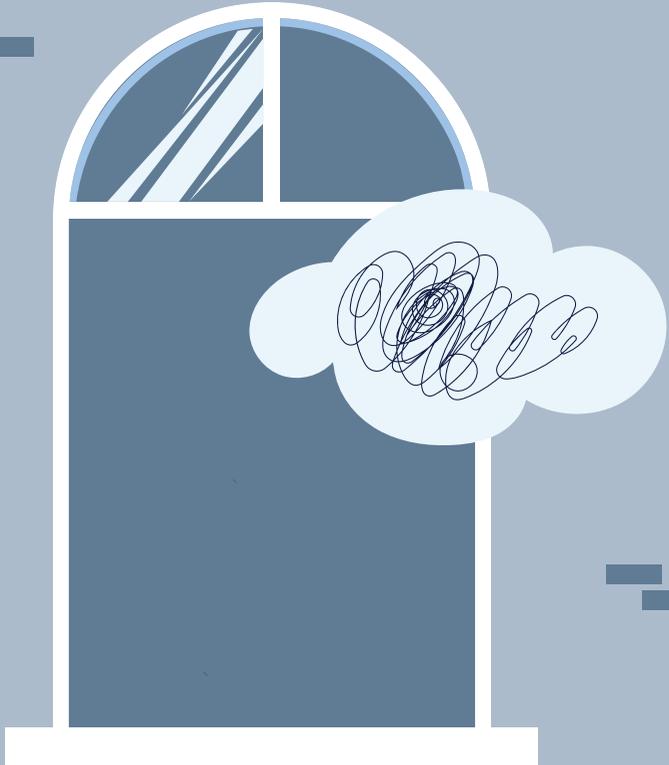
이 글이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질과 핵심을 짚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문제는 어떤 현상의 단편이다. 여러 부스러기 중 현재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을 모은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현상을 해결할 절대적 방안은 없다.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건너편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니 염치 불고하고 부탁하자면, 근맥을 많이 읽어주세요.

청년

청년

21세기 실패담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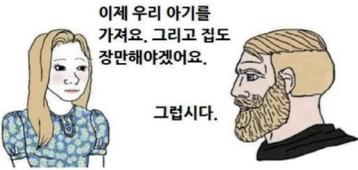
편집장 조현빈

이 글은 길고 긴 푸념의 뭉텅이다. 그러니 언제든 이 글을 넘겨도 좋다. 어차피 이곳엔 당신이 찾는 희망이 없다. 푸념을 늘어놓기 전에 한 가지 비밀을 고백해야겠다. 나는 이 주제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 좋아하지 않냐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청년은 내게 하나의 단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질, 앙금 없는 단팥빵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지의 한 주제로 자리 잡은 ‘청년’은 내게 참 난처하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기 때문이다. 우연히 맡게 된 청년 기사의 초안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으니 단지 기사를 나열할 뿐이었고, 그마저도 분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 글의 문제점이 뭘지는 알죠? 동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청년이란 뭐길래 나를 이리도 난처하게 만드는 걸까.

청년은 원숙한 기성세대와 미성숙한 소년 사이에 해당하는 20대 정도의 젊은 세대를 지칭한다.¹⁾ 그 자체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며, 시대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개념을 구축한다. 근대화 시기에 청년은 신문물과 신교육을 통해 기성세대의 봉건적 세계관을 타파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희망이었다. 1960년대 후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은 대학생 혹은 노동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1970년대 청년들은 기성 권력에 맞서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다. 1980년 후반부터 청년은 곧 대학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했는데, 투쟁이 학교와 묶이며 계급의 개념을 덧입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상황은 ‘586세대’³⁾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586세대는 60년대에 태어난 80년대 학번을 뜻하는 말로, 당시 청년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1980년 대학 취학률이 1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다수의 청년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수의 대학 진학자, 특히 학생운동에 가담한 극소수의 대학생이 정치권에 대거 진출하여 동질성을 형성하면서 이들은 청년의 목소리로 거듭난다. 발화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 미진학자, 장애인은 청년의 이미지에서 배제된다.⁴⁾ 사회가 하나의 이름으로 ‘청년’을 호명하는 순간, 저마다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개별의 존재가 사라진 셈이다.

1) 최성민. (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現代文學理論研究, 50, 227-248.
2) 위의 글.
3) 해당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에는 386세대라 불렸지만, 이들의 나이를 반영하여 486, 586세대 등으로 변화하였다.
4) 조은주. (2022). 세대론 비판 너머의 질문들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개마고원, 2022)-. 개념과 소통, (29), 235-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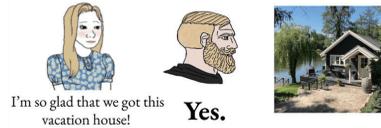
부모님이 28살일때



내가 28살일때



My parents at 31



Me at 31



▲ 부모님 세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밈. 출처 불분명.

몇 달 전 편집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사진 문치를 발견했다. 이전 편집위원들이 오래전에 두고 간 사진이었다. 대학 선거부터 집회까지, 투쟁의 기록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상자에는 1996년에 작성한 편지 두어 통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을 테니 선배는 아마 70년대생일 거다. <응답하라 1988>의 보라⁵⁾, 그리고 우리 엄마와 동년배다. 하지만 같은 시기를 공유한 이 세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 편집위원 선배와 보라에게 집회는 낯설지 않겠지만, 경기 북부 끝자락에서 태어난 엄마는 집회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엄마에게는 대학 운동 역시 낯선 개념이다. 그렇다고 한 지붕 밑에 사는 엄마와 내가 같은 것도 아니다. 엄마는 20살에 홀로 서울로 상경에 직장을 구했고, 아빠를 만나 두 딸을 낳아 길렀다. 한편 올해로 23살이 된 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집에 눌러앉아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들이 산 전기장판에서 몸을 녹인다. 같은 대학, 같은 교지의 편집위원인 나와 선배는 비슷할지도 모른다? 선배가 집회 현장에서 투쟁하며 청춘을 불태웠을 시기에, 나는 편집실 침대에 누워 유튜브와 청춘을 불태우고 있다.

5) tvN의 코믹가족극 <응답하라 1988(2015)>에 등장하는 캐릭터 보라는 1968년생,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운동권 학생으로 나온다.

흘날리는 청춘

청춘, 피하고 싶었던 단어를 너무 빨리 써버렸다. 청년은 청춘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청년은 곧 청춘으로 정의되고, 청춘은 곧 청년의 수식어로 여겨진다. 때로는 한낱 어린놈의 객기로, 그리운 인생의 전성기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로, 또 때로는 마냥 활기찬 시기로 낭만화되기도 한다. KBS 드라마 <쌈, 마이웨이(2017)>의 주인공들은 사회로부터 '마이너'로 분류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진한다. 오히려 "사고 쳐야 청춘이다"⁶⁾라고 외치며 자신이 주인공인 세상을 꿈꾼다. SBS 드라마 <치얼업(2022)>에서는 대학 응원단에 모인 대학생들이 '밥 먹고 사는 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⁷⁾ 즐거움을 기꺼이 선택한다. 그래, 나도 고등학생 때까지 청춘이 포카리스웨트 광고처럼 푸른빛으로 가득할 줄 알았다. 언제나 꿈을 응원해주는 조력자, 무일푼이어도 꿈을 좇을 열정, 좌절할 때쯤 찾아오는 기막힌 우연이 내게도 찾아올 거라 믿었다. 남몰래 흘린 땀방울이 미래에 만개할 꽃들을 위한 빗방울이 될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청년으로 불리는 지금의 나는 남몰래 흘린 땀방울은 그냥 개고생이란 걸 안다.



▲ (좌) 웹툰 <미생(未生)(2012)> 장면 캡처 ©카카오웹툰 | (우) SBS 드라마 <치얼업(2022)> ©SBS

6) KBS. <쌈, 마이웨이(2017)> 프로그램 소개. <https://program.kbs.co.kr/2tv/drama/ssam/pc/detail.html?smenu=c8e571>(2024.01.11. 접속).

7) 해당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에서 '낭만이라는 무용의 쓸모'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설명한다. (SBS. <치얼업(2022)> 프로그램 소개. <https://programs.sbs.co.kr/drama/cheerup/about/72138>(2024.01.11. 접속).)

스무 살이 되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도, 주휴수당도 없었다. 근무 시작 석 달 후부터 주에 25시간은 넘게 일했는데 달랑 최저시급만 받았다. 향의도 못 했고 신고도 못 했다. 오늘은 꼭 말해야지 다짐했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6개월을 채우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불안과 불편함, 찝찝함은 품고 살기에 너무 무거운 감정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을 겪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구질구질한 사회에서 사는 게 지겨워도 그냥 그러려니 넘긴다. 소리 낼 용기도 없고, 나 대신 싸워줄 조력자도 없다. 친한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다가도, 서로에게 짐이 될 걸 알기에 입다문다. 최대한 덜어내고 덜어내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 짧은 위로와 우는 이모티콘 하나가 도착한다. 잔뜩 지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정과 공감이다. 내 몸 하나 거느리기 힘든데 세상을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영웅을 꿈꾼 적도 없고 꿈꾸고 싶지도 않다. 휘몰아치는 과제와 대외활동, 아르바이트를 해치우다 보면 잔디밭에 앉아 친구와 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 된다. 솔직해지자면 우정을 다지기보다는 걱정 없이 푹 쉬고 싶다. 드라마에서는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잘도 놀러 다니던데, 내게는 그럴 시간도 돈도 없다. 청년으로 살아가는 건, 청춘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힘 빠지는 일이다.

하지만 내게는 자기연민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도 없다. 서둘러 자기계발서를 읽고, 스펙을 쌓기 위해 봉사활동을 찾는다. 자격증과 인턴도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홀로 베투댄다. 자격증 접수비는 245,000원. 교재비와 강의료까지 합산하면 지갑이 한없이 가벼워진다. 교통비와 식비, 나아가 학비를 충당하려면 주말에도 아르바이트해야 한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격과 능력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빙글빙글 순환하는 이 구조를 견디려면 나를 도구로 만들어 타인과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⁸⁾ 청춘을 '반납한'⁹⁾ 건 나 뿐만이 아니다. 사실 청춘이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 일이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춘은 곧이어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했고, 꿈과 희망과

8)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9) 기성 매체가 공급하는 긍정적인 청년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보이지 않는 청년' 열 명의 인터뷰를 담은 도서의 제목을 차용했다. 본 저서는 기성세대의 위로와 희망 주입을 거부한 청년에 주목한다. (안치용·최유정. (2012). 청춘을 반납한다. 서울: 인물과 사상사.)

지 포기했다.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한 것도 무려 7년 전 이야기다.¹⁰⁾ N포세대의 포기에는 끝이 없다. 구직 활동을 멈춘 청년 중 직업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니트족¹¹⁾은 8만 4천 명에 달한다.¹²⁾ 일하기 위해 포기할 항목을 줄줄이 늘어놓던 청년은 이제 일할 의욕마저 잃었다. 청춘은 더 이상 꿈을 욕망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남기만을, 혹은 사라지기만을 욕망할 뿐이다. 20세기 청년이 기성세대에 맞서 변화를 이끄는 투쟁과 문화의 주체였다면, 21세기 청년은 투쟁도, 희망도, 절망도, 열정도 없는 단순한 '젊은이'로 남은 셈이다. 추방된 영웅에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당위도 없다.¹³⁾ 고용불안과 창업 실패, 주거 불안의 문제는 영웅의 힘이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우리에게 패배자, 혹은 실패자라는 낙인이 따라온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경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에서 청년의 좌절과 불안은 그저 개인의 약함으로 남을 뿐이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담론이 등장했지만, 실패의 책임은 여전히 개인의 몫이다. 10년 전 실패 담론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한다. 시간과 감정, 체력을 소모하며 사회에 맞서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 그러니 암전히 살아남는 편을 택하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이 사회에서는 영웅이 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개뿔 없고.¹⁴⁾

-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중

혹자는 청춘의 요구와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춘 담론이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한다.¹⁵⁾ 실제로 청춘의 바깥에서 외쳐대는 낭만가와 응원가는 청년의 허무와 우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되레 버릇없는 객기로, 개념 없는 세대가 빚어

10) 성연주·김지애. (2017).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61-175.
 11)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NEET)의 줄임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욕도 없는 구직단념자를 의미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니트족. 지식백과. 2019.09.1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07&docId=2078965&categoryId=42107>(2024.01.12. 접속).)
 12) 원나래. 「3년 이상 취업 않고 집에서 된 청년 '니트족' 8만명」, 『데일리안』, 2023.10.22.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5780/?sc=Naver\(2024.01.12. 접속\)](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5780/?sc=Naver(2024.01.12. 접속)).
 13) 김미현. (2016). 청춘의 역승(逆襲)과 세속화: 장강명의 청춘소설 3부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67-96.
 14) 장강명. (2015). 한국이 싫어서. 서울: 민음사, 11쪽.
 15) 김미현. 앞의 글.

낸 말썽으로, 마냥 용서받을 수 있는 낙관으로 단순화되어 정의될 뿐이다. 명명한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지만, 사회는 청년을 생년이라는 단순한 숫자로 압축할 뿐 학력, 젠더, 지역, 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촛불세대', '88만원세대', '달관세대'로 불리던 청년은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잃은 채 'MZ' 혹은 그저 '청년'으로 호명된다.¹⁶⁾ 'SKY 대학'의 진학자, 지방대 진학자, 대학 미진학자, 고시원을 떠돌며 '소리가 나지 않는 인간'¹⁷⁾이 된 청년, 경제활동을 단념한 은둔 청년, 빈곤 청년, 장애 청년. 이들의 다양성과 특수성, 삶의 맥락은 무시되고, 모두가 '청년'으로 뭉뚱그려진다.

서두에 언급했던 청년의 개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 명확한 기준도, 의미도 없다. 청년은 변화하는 하나의 틀일 뿐 실제의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 N포세대 담론도, 희망 담론도, 복지 정책도 늘 임의적인 기준에 따른 소수만을 포괄한다. 개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청년의 정의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빼앗고, 주류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기 때문이다. 번두리로 쫓겨난 이들의 목소리는 환류되지 않는다.¹⁸⁾ 사회는 이들을 궁금해하지도, 포용하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실이 청년 담론 속에 청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에서 분리되어 소모되고, 가벼워지고, 방치된다. 실업난, 주거난, 청년 빈곤, 청년 우울은 늘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언제쯤 청년은 꿈과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 꿈꿀 수도 없고 이름을 가질 수도 없는 이들은 오늘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달린다. 이 글은 청년의 삶을 비판하는 길고 긴 푸념의 뭉텅이다. 그러니 언제든 이 글을 넘겨도 좋다. 어차피 이곳엔 당신이 찾는 청년이 없다.

16) 정나리·조대엽. (2023). 2000년대 한국의 세대 개념과 청년세대 호칭의 유형. 한국사회, 24(1), 3-28.
 17) 박민규의 단편 소설 「감을고시원 체류기」에서 주인공은 작은 소리도 조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걷고, 코를 푸는 대신 조용히 찌는 등 소리 내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다. (박민규. (2014). 카스테라. 파주: 문학동네.)
 18) SBS 뉴스. (2021.10.04.). [SBS D포럼] 사회에서 이야기 하는 '청년', 나도 포함 되는 걸까요? [영상]. 유튜브. https://youtu.be/JsXfguvaPW8?si=TWIOhp_GQUsNOWoj(2024.01.11. 접속).

참고문헌

- 김미현. (2016). 청년의 역습(逆襲)과 세속화 : 장강명의 청년소설 3부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67-96.
- 김흥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박민규. (2014). 카스테라. 파주: 문학동네.
- 성연주·김지애. (2017).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61-175.
- 안치용·최유정. (2012). 청년을 반납한다.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원나래. 「3년 이상 취업 않고 집에서 쉬 청년 '니트족' 8만명」. 『데일리안』. 2023.10.22.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5780/?sc=Naver>(2024.01.12. 접속).
- 장강명. (2015). 한국이 싫어서. 서울: 민음사.
- 정나리·조대엽. (2023). 2000년대 한국의 세대 개념과 청년세대 호칭의 유형. 한국사회, 24(1), 3-28.
- 조은주. (2022). 세대론 비판 너머의 질문들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개마고원, 2022)-. 개념과 소통, (29), 235-265.
- 최성민. (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現代文學理論研究, 50, 227-248.
- 한경 경제용어사전. 니트족. 지식백과. 2019.09.1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2107&docId=2078965&categoryId=42107>(2024.01.12. 접속).
- KBS. 〈쌈, 마이웨이(2017)〉 프로그램 소개. <https://program.kbs.co.kr/2tv/drama/ssam/pc/detail.html?smenu=c8e571>(2024.01.11. 접속).
- SBS. 〈치얼업(2022)〉 프로그램 소개. <https://programs.sbs.co.kr/drama/cheerup/about/72138>(2024.01.11. 접속).
- SBS 뉴스. (2021.10.04.). [SBS D포럼] 사회에서 이야기 하는 '청년', 나도 포함 되는 걸까요? [영상]. 유튜브. https://youtu.be/JsXfguvaPW8?si=TWIOhp_GQUsNOWoj(2024.01.11. 접속).

21세기

실패담

수습위원 송주은

YOU LOSE

Respawn
(+50코인)

메인 메뉴로

또 죽었다.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 도전한 만큼 실패를 봤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인이 없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한다는 다짐의 끝은 늘 똑같다. 항상 실패다. *You Lose*. 고작 두 단어뿐인 문장이 모든 걸 말한다. 게임에서 패했고, 코인을 잃었고,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는 코인이 채워지길 기다리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나는 너무 자주 실패자가 된다.

나는 너무 많은 곳에서 실패자가 된다.

STAGE 1. 끝없는 실패

19살 끝자락, 하향 지원한 지방 대학에 합격했다. 바라던 대로 대학생이 됐지만,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적어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줄 알았는데, 상상해 보지 않은 미래였다. 인터넷에 떠도는 지방 대학생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모든 기회를 놓친 것만 같았다. *원래 제 내신은 중상위권이었는데 지원 전략을 잘못 짰어요. 수능은 조금 더 나은데, 수시 납치 아시죠?* 같은 변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 대학이 내 노력의 결과는 걸 믿고 싶지 않았다. 대학 이름은 지나온 모든 시간을 압축했다.

합격 발표와 대학 입학식 사이 붕 뜬 시간 동안 나에게 되물었다. 왜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한 문제 더 풀지 않았을까? 어느 날은 모든 게 내 탓처럼 느껴졌다가 다른 날은 학력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와 입시 제도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싶었다.

친구를 만나도 해소되는 건 없었다. 새 학기를 기대하는 그들과 나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맞다, 너 그 이야기 들었어? 지혜 이번에 인서울 했다더라.*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적인 나랑 비슷하지 않았나? 어떻게 인서울을 한 거지? 그러다가 번뜩 정신을 차렸다. 아, 나 방금 좀 최악인데.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첫 학기가 시작됐지만, 우울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족한 학교가 아니었기에, 정문을 지날 때마다 이곳에서 4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울렁였다. 처음으로 한 타지 생활도 쉽지 않았다. 학교를 싫어하니 적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 당연했다. 이곳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기숙사에 입사했지만, 주말마다 먼 길을 돌아 집으로 갔다.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룸메이트가 물었다. *너 이번 주말에도 집 가지? 그럼 내 친구 데려와도 될까?*

다들 벌써 친해졌구나. 나는 아직도 모든 게 낯선데. 적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다시 패배감이 들었다.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룸메이트와 달리, 나는 누군가 대학을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SNS에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았다. 나는 여기보다 높은 곳을 가야 했는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같은 생각이 휘몰아쳤다. 합격한 대학이 나를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서를 냈다. 그리고 22살, 덕성여대에 입학했다.

이상하게도 실패라는 생각에는 끝이 없다. 스물둘에 일 학년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었다. 남들보다 2년이나 늦어 버린 출발은 최상위권 대학일 때만 용납될 것 같았다. 20살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나에게는 손에 꼽을 명문대라는 면죄부가 필요했다. 늦은 만큼 더 높게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나를 괴롭혔다. 지금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가도 실패했다는 생각에 한없이 우울해졌다. 대학 라인을 줄 세워 나의 위치를 가늠했다. 검색창에 ‘덕성여대 인식’ 같은 걸 넣어보고 낙담했다가 학교를 칭찬하는 글을 보며 위안받았다. 사람들의 평가 하나에 인생이 널뛰었다. 지금 내 불안이 패배감이 만들어 낸 감정이란 걸 인정할 수 없었다. 발 내딛는 곳마다 실패로 점철된 기분이었다. 그리 원하지 않았던 대학에 붙은 것,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고 학교를 도망쳐 나온 것,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학하게 된 것, 심지어는 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결함으로 느껴졌다.

STAGE 2. 사회와 실패

누가 정한 건지도 모를 성공의 기준이 평생을 따라다닌다. 덕분에 내 인생은 매분 매초 평가의 대상이 된다. 초·중·고, 알맞은 나이에 들어가 19살에 졸업한다. 20살에는 인서울 4년제에 간다. 여름방학 때 컴활과 토익을 준비한다. 대외활동은 서너 개 정도, 인턴은 최소 한 번, 졸업은 적어도 25살까지 해야 한다. ‘평범’과 ‘보통’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이 인생 계획표는 멈출 줄을 모른다. 취업과 결혼, 자녀계획, 은퇴, 자산, 모든 기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기준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을 판단하는 이 일련의 시험들은 나의 능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위치를 만들어 낸다.



▲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2023)> 사진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2023)>는 실패를 바라보는 사회와 개인의 태도를 보여준다. 등장인물 ‘서완’은 여러 차례 공무원 시험에 낙제한 고시생이다. 긴 고시 생활의 딜레마와 좌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게임은 그의 유일한 심터였다. 게임에 빠져든 그는 망상장애를 얻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게임 밖 현실을 깨닫고 고시생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압박감을 느낀다.

“5년, 10년 노력한 걸 누가 알아줘? 노력도 결국 붙어야 인정을 해 주는 거야. 안 붙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에 노력 덜 한 애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라고.”¹⁾

현실로 복귀한 그의 대사는 결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놓인 위치를 묘사한다. 서완의 위치는 합격 결과로 결정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 관해 이야기할 권리를 얻는 것이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이러한 맥락을 성원권으로 설명한다. 성원권이란 사회에서 호명될 수 있는 권리로, 집단에서 내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진 후에야 획득할 수 있다.²⁾ 성원권은 ‘보통’과 ‘평범’의 존재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이제 ‘보통’과 ‘평범’의 기준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다. 20살에 대학에 입학해 무난하게 취업한 삶, 앞서 언급한 인생 계획표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자퇴생, 고졸, 지잡대생, 취준생

1) 이재규(감독). (2023).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드라마]. 넷플릭스.

2)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현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등 여러 멸칭으로 묶여 사회에서 배제될 뿐이다.

집단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최상위권 대학의 재학생이 아니라면 건 내 미래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다. 학벌은 취업 결과로 이어져 또다시 나를 제한한다. 이는 청년 취업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어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비밀비재하다. 재창업에 도전해도, 코로나19 긴급경영지원을 신청해도, 과거 실패 경험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³⁾ 한 번의 실패가 다음 실패를 예견한다. 한 번의 도전이 삶의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악순환이다. 낙인은 일종의 처벌로 작동하며, 이를 경험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성공을 갈망한다. 도전의 기회는 유일하고,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겁다. 정상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열망이 점차 짙어진다.

이러한 연쇄적인 결박을 지적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나의 항변은 사회에서 ‘패배자의 열등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조리한 구조를 논하고 타파할 수 있는 건 이미 성공해 패배 의식이 없는 사람뿐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또 다른 업적이자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결국 성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다.

STAGE 3. 실패해도 되는 세상?

모든 걸 내려놓는 일도 쉽지 않다. 성공 없이 살고 싶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허용될 수 없는 ‘욕심’이다. 이쯤에서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사회 탓만 하냐고. 물론 모든 원인이 사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이 구조를 변혁하려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실패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 실패박람회는 국민의 재도전을 격려하고, 실패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⁴⁾ 참가자들은 창업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실패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실패박람회는 인식을 재고하기는커녕 성공과 실패의 경계를 강화한다. 이 박람회에서 실패는 ‘극복’해야 하고, ‘자산화’해야 하는 과거일 뿐이다. 재도전 전문가 역시 재도전을 위한 삶의 기반 마련에는 무관심하다. 이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실패에서 재기에 성

공하는 10가지 조건’을 해결책이라며 내민다.⁵⁾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며 내놓은 결과가 고작 ‘청년 소상공인 실패방지’ 같은 정책들이다.⁶⁾ 이제 실패는 ‘방지’해야 할 대상으로, 아예 예방까지 한다. 결국 사회 인식 변화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 2022 실패박람회 다시 ©행정안전부

실패 담론은 사회 구조에 내재한 생산주의와 엘리트주의, 관료제적 문화에서 비롯된다.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 없이 담론의 재생산을 막을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는 실패하고 낙오된 이들에게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응원하지만, 그들이 정말 실패했는지에 관해서는 묻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인식 변화가 실패 담론을 극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말할 단상조차 내어주지 않는 사회에서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삶 하나 제대로 일궈내지 못한 개인을 사회는 보지 않는다.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을 좇을 수밖에 없다.

3) 이완기·박진용, 「“실패자 먹지는 코로나 지원도 박탈…힘로 여전한 재도전”」, 『서울경제』, 2022.03.10.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COJEW7N\(2024.02.02.접속\)](https://www.sedaily.com/NewsView/263COJEW7N(2024.02.02.접속)).

4) 2022 실패박람회 다시, 2022 실패박람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https://www.failexpo2022.com\(2024.01.27.접속\)](https://www.failexpo2022.com(2024.01.27.접속)).

5) 재도전 상담소 다시클리닉,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암울한 인생이여, 『행정안전부』, [https://www.failexpo2022.com/dasiclinicPosting/2802\(2024.01.27.접속\)](https://www.failexpo2022.com/dasiclinicPosting/2802(2024.01.27.접속)).

6) 2022 실패박람회 다시, 앞의 글.

FINAL STAGE. 여기가 끝이 아니지 않을까?

사실을 고백하자면, 아직도 가끔 이불을 찬다. 더 좋은 대학에 간 이들이 부러워서. 패배감이 열렸지만 언제나 친구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1년만 일찍 들어왔다면 조금 더 만족하고 다녔을 거란 생각도 든다. 명문대 졸업생도 쉽게 가지지 못하는 아이비리그 박사 학위라든가 노벨상이라도 타야 이 감정이 해소될 것 같다. 결국 새로운 성공을 통해 실패를 만회하고 싶다는 의미다. 변한 건 없다. 사회는 문제를 답습하고, 그냥 고꾸라지기를 선택한다. 나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 시류에 탑승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회는 나와 복잡하게 얽혀있고, 내가 직면한 상황은 온전히 내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다. 누구 하나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다. 나의 경험은 그냥 나를 구성할 뿐이라고. 실패에는 절대적인 기준도 고정적인 실체도 없다. 죽도록 작성했던 오답 노트 덕에 성적이 올랐다가, 좌절할 내게 운명처럼 희망이 찾아왔다는 식의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다. 애초에 그런 전환점은 내게 없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지나 감정이 사그라진 후에야 보이는 사실이 있다는 거다.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마주치기 마련이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시간은 흐르고, 고통은 희미해진다. 성공으로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실패라고 부를 것도 없다. 어차피 모든 건 다 가정일 뿐이다.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다. 공감이 가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을까, 아니면 한심하고 불품없는 방향이었을까. 당신은 나의 경험을 성공과 실패 중 무엇으로 바라봤을까. 나는 사회가 아닌 당신의 기준이 궁금하다. 사실 기준이란 영원하지 않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경험은 분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생성하기를 반복한다. 지금은 '21세기 실패담'에 속한 경험도 나중에는 어떻게 정의될지 알 수가 없다. 성공과 실패에 속하게 될 수도, 혹은 그 무엇도 아닌 어딘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다. 타인의 기준, 비난과 칭찬은 의미가 없다. 스스로 비판하고 위로해야 한다. 주저앉은 자신을 잠시 기다려 주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넌지시 물어보는 게 전부라는 뜻이다. 실패는 극복해야 할 패배도, 성공을 향한 도약도 아니다. 가끔 위축됐다가, 툴툴이 사회를 바꾸려 시도했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위로도 받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난다. 오늘의 내가 보지 못한 걸 그때의 내가 보여줄 것이다. 과거의 나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의 나는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 다시 일어나면 된다.

참고문헌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현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완기·박진용. 「"실패자" 딱지는 코로나 지원도 박탈...힘로 여전한 재도전」. 『서울경제』. 2022.03.10. [https://www.seodaily.com/NewsView/263COJEW7N\(2024.02.02.접속\)](https://www.seodaily.com/NewsView/263COJEW7N(2024.02.02.접속)).
- 이재규(감독). (2023).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드라마]. 넷플릭스.
- 이하영. 「"무슨 낯으로 고향에 가나요"...취준생은 '방구석 죄인'」. 『서울신문』. 2018.09.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1500218&wlog_tag3=naver\(2024.01.26.접속\)](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1500218&wlog_tag3=naver(2024.01.26.접속)).
- 재도전 상담소 다시클리닉.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암울한 인생이여. 『행정안전부』. [https://www.failexpo2022.com/dasiclinicPosting/2802\(2024.01.27.접속\)](https://www.failexpo2022.com/dasiclinicPosting/2802(2024.01.27.접속)).
- 2022 실패박람회 다시. 2022 실패박람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https://www.failexpo2022.com\(2024.01.27.접속\)](https://www.failexpo2022.com(2024.01.27.접속)).

여성

두근두근
다가가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막을 올립니다.

여자중독



두근 두근 다가가기 프로젝트

부편집장 조은결

오늘도 한 걸음 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았다. 별이 찬란한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자를 부르는 동아리 모집 포스터며, 교내 소모임 홍보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래도 여대라 그런가? 곳곳에서 여성 인권을 이야기한다. 나도 페미니즘에 관심은 있지만 다들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하지? 페미니즘의 물결들은 뭐람? 보부아르, 버틀러, 해러웨이, 브라이도티... 가뜰이나 어려운 이론들인데 외국의 학자라니, 혼자 붙잡고 있기엔 막막하다. 나는 언젠쯤 척척박사가 될 수 있지?

↳ 위 내용이 본인의 얘기 같다면 본 기사를 주목하세요!

그래서 근맥이 준비했습니다.

추천 페미니즘 도서! #내돈내산 #완독 #오독완

여성학과 평화학 연구가 정희진의 책 두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희진은 ‘아내 폭력’이 은폐되고 생산되는 실상을 드러낸 『아주 친밀한 폭력』, 성찰적 독서를 기록한 『정희진처럼 읽기』의 저자로, 이외에도 여러 책을 쓰고 편집했다.

· 페미니즘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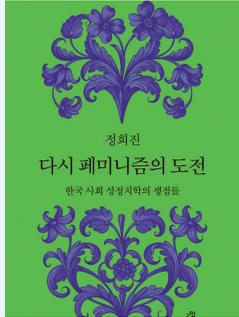
▲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교양인, 2005.

『페미니즘의 도전』은 2005년에 출간된 이후, 페미니즘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책’이었다. 국내 저자의 여성학 저서라는 점에서 판매율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15년간 스테디셀러로 자리하며 명성을 굳혔다. 이는 많은 이들이 페미니즘 지식에 목말라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종종 지배 권력이 생산하는 ‘상식’으로는 원인을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마주친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다거나, 명백한 페미사이드¹⁾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엔 다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대와 좌절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만 남는다. 이때 여성주의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 주며 ‘보편’으로 통용되는 그들의 논리를 전복한다. 날카로운 시선을 견지하는 일은 그 자체로 힘들고 지치는 여정이다. “나는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다는 것, 더구나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역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무지로 인해 보호받아 온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사회에 대한 분노, 소통의 절망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²⁾ 저자의 말처럼 여성주의는 사람들을 행복하거나 편안한 상태로 이끌지 않는다. ‘상식’으로 통용되는 지배 규범을 일깨우고 도전하는 새로운 언어는 세상과 유리된 불편함을 선사할 것이다.

아직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세계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마음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1판 1쇄 발행 이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교과서’로 술하게 언급될 정도이니 말이다. 사회에 통용되던 정의에 반하는 각기의 페미니즘‘들이’ 등장하며 연대를 촉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이런 때야말로 “지속적인 모색이고, 사유이며, 자기 변화”³⁾인 ‘도전’에 도전하기 적절한 시점일지도 모른다. 혹 이미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했다면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촘촘히 얽힌 구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자. 그러니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지도 모른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삶의 방식을 고민했던 순간들. 고통스러웠지만 환희에 들끓었던 기억이다. 이처럼 희열을 동반한 이물감은 분명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통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⁴⁾임을 다시금 확인하듯 말이다.

1) 페미사이드(femicide)는 젠더 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31쪽.
3) 위의 책, 13쪽.
4) 페미니즘 사상가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말을 인용한 『페미니즘의 도전』의 문구를 재인용했다.

·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교양인, 2023.

『페미니즘의 도전』이 여성주의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책으로 꾸준히 읽힐 무렵 또 한 권의 책이 신년 선물처럼 등장했다. 지난 2023년 11월 출판된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은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을 짚어 본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변화해 온 여성주의, 특히 정체성 담론을 분석한다. 개인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부재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개인은 각자도생을 강령으로 삼고, 생존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 이때 적극적으로 자원화되는 것이 몸이다. 젠더 정체성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며 이전과 다른 섹슈얼리티 실천으로 연결된다. 억압의 원인이었던 여성성이 현재는 일부 여성에게 자원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다.⁵⁾

이 책은 『페미니즘의 도전』에 비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이슈가 맥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주의가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공적 의제라는 점에서, 한국의 젠더 문제를 직접 고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실현하려면 다양하고 단단한 생각의 토대가 필요하다. 도발적인 문제 제기로서 “한국이라는 로컬의 섹슈얼리티 ‘현실, 문화, 담론’⁶⁾을 다루며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⁷⁾인 이 책과 함께 사유해 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도 ‘남성 사회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언어와 함께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지도 모른다.

“이 책이 쉽게 읽히지 않는, 논쟁의 불씨가 되는 텍스트이기를 바란다. 여성학, 여성 운동은 모든 담론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경합을 통한 생산적인 갈등 없이는 진전도 없다. 한국의 여성주의가 나아감 없이 여성의 생존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미소지니⁸⁾의 타깃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나는 여성의 공부, 다른 언어, 남성 사회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최고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남성 사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그들이 못 알아듣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자.”⁹⁾

5) 정희진. (2023).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9쪽.

6) 위의 책, 14쪽.

7) 위의 책, 12쪽.

8) 미소지니(misogyny)의 직역은 여성혐오로, 한국에 ‘여성혐오’가 알려진 것은 우에노 치즈코(上野 千鶴子)의 『일본의 미소지니』가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로 번역되면서다. 그러나 정희진은 사회마다 성차별의 작동 방식과 가부장제의 성격, 여성의 의미가 다르기에 번역 시 한국에서의 맥락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것이 오역이라고 말한다. 미소지니의 적절한 대응으로 ‘남존여비’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희진. 『정희진의 어떤 메모』 미소지니=여성혐오?』. 『한겨레』. 2017.08.04.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05605.html>(2024.01.29. 접속).)

9) 위의 책, 20쪽.

후회는 전진을 위한 것!

좋은 책이고 대단한 저자인 건 알겠어. 그렇지만 텍스트는 너무 딱딱해! 전문 용어로 무장된 이론 앞에서는 빠도 못 추리는걸. 잠깐, 그러고 보니 덕성여대에 입학했다면 꼭 들어 봐야 하는 수업이 있다던데? 바로 김주희 교수님의 여성학 강의! 그렇지만 교양 수업 정원은 터무니없이 적고, 내 손은 너무 느린걸. 아무리 멋지셔도 항상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 이번에도 근맥이 마련했다. 궁금증 해소를 위한 김주희 교수님과과의 시간!

조은결 |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여성학 전공자로서 ‘몸의역사’, ‘여성과노동’, ‘여성과학대사회’ 등 여러 교양 수업을 맡고 계시죠. 이번에 좋은 기회로 교수님과 인터뷰하게 되었어요. 처음 제안했을 때 흔쾌히 응해 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김주희 교수 | 2021년에 덕성여대라는 낯선 환경에 와서 교지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개강 전, 그러니까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 이미 교지를 통해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수업에 들어온 교지부 친구가 인터뷰를 요청하니 너무 기쁘고 반갑고, 마다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은결 |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덕성의 슈퍼스타셔서… 재학생들이 올리는 강의 추천 목록에 교수님 수업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덕성여대 입학했으면 꼭 들어 봐야 한다’라고 명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저도 딱 하나 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강단에 서 계신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런 애정의 원천이 궁금해요.

김주희 교수 | 저는 교실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20년 전 내 모습 같고, 그 학생들이 곧 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처음 대학 교육을 받았을 때 느낀 놀라움도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아, 대학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스펙을 쌓아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뒤집으면서 질문하고 사회를 새롭게 보고 일상을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곳이구나. 어른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또 덕성여대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망, 알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구체적이예요. 관념적으로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의 태도보다 ‘이런 질문을 해결하려 수업에 들어왔다’라고 말해 주는 구체성인 거죠. 실질적인 지식과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해요.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다음 수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와는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이슈가 현실의 나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 때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 그걸 나도 경험했으니까 교실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걸 항상 떠올려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또 추천도 해 준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조은결 | 그럼 이제 추천하셨던 책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읽고 생긴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저자는 여성학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이 정치적으로 각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대학’은 굉장히 탈정치화된 공간이잖아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페미니즘 이론을 거시적인 사회 영역에 적용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에 더 치중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성학 강의실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김주희 교수 | 벨 훅스도 여성학을 처음 배웠을 때 얘기를 인상적으로 하고 있죠. 여성학은 공터나 광장에서 민중들과 만나 지식을 생산하고 확장할 기회나 여건, 스승이 적어요. (그래서 차미리사 선생님이 선구적이기도 한 것이고요.) 기회는 대개 교실에서 열리죠. 이때 내가 누리고 있는 대학 교실이 특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 경험과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비슷한 모습으로 이 공간에 있지만, 그게 당연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적으로 이곳에 놓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며 수업에 임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말도 깊이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경험을 설명하려는 태도도 괜찮아요. 이 지식이 내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가깝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조은결 | 책의 내용대로라면 페미니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수적인데요. 한국에서 페미니즘은 ‘반남성주의’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김주희 교수 | 페미니즘은 반남성주의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이 남성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반을 붙이자면) 반남성중심주의인 것 같아요. ‘기존의 세계를 부수는 게

혁적인 시도가 싫다’는 사람들이 안티페미니스트인 거고요. 책에서도 말하듯이, 페미니즘 지식은 모두를 위한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거든요. 여성들의 누락된 경험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할지, 어떻게 평등한 세계를 만들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안다면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남녀공학 수업 들어가면 남자들이 공부 모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남성들도 있고요. 어쨌든 남성 페미니스트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남성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필요하죠. 공학도 여대처럼 더 다양한 수업을 개설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조은결 | 그런데 책을 읽으며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좋은 입문서인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배경이니까 꼭 한국에서만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미국의 굵직한 사건이나 여러 영미문학을 언급할 때나 ‘페미니즘 영성’에 대해 얘기할 때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김주희 교수 | 맞아요. 나도 그랬어. 처음 영미권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이 쓴 책들을 읽었는데 흥분되지만 묘하게 나와 다른 느낌. 그래서 다양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나랑 좀 더 가까운 걸 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영미권 책뿐만 아니라 태국, 동남아, 아프리카, 인도, 남미 각지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책에서도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달랐어요. 이 이질감조차도 단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이질감과 또 다른 배움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이질성이 있다는 걸 알기. 나와 가까운 페미니즘 책을 읽고 싶다면 한국의 책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기. 이 둘의 균형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진 선생님 책도 좋고, 이소진 씨의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젊은 책이에요. 이소진 씨도 학생들이랑 나이 차가 크지 않을 거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쟁 같은 맛』은 소설인데 멀지만 가까운 책이죠. 미국에서의 경험이 영어로 쓰였지만 한국의 흔적을 가지고 가니까.

조은결 | 그런데 교수님... 페미니즘 도서도 그렇고 책이 너무 비싸요.....

김주희 교수 | 이해해요. 나도 대학생 때 돈 모아서 두꺼운 사회과학 책 사고 그랬거든요. 대책 마련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원해서 가졌을 때 큰 만족감을 주는 게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읽고 싶은 책을 사고, 밑줄 긋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네요. 학생들이 책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면 일단 너무 바쁘지. 독서에 필요한 시·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관들이 조금 만들어져 있어서 항상 책을 끼고 다녀요. 누구 기다리면서, 회의 시작 전에 몇 장이라도 읽는다거나.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구성하는 것 중 중요한 부분이 이 물체성. 만져지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면서 나와 글이 대면하고, 메모지에 필기하면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생각하면서 찾아 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대학생 시기거든요. 또 한 권을 다 읽으려는 강박을 갖지 않아도 돼요. 어쩌면 읽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고 쌓아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책이든 만났을 때 이 책에 대한 정보, 의미, 중요한 문장, 책을 만난 시기와 이유처럼 도움이 된 것들을 써둔다면 그 책은 내 것이 되는 거거든.

조은결 | 참, 중간에 페미니즘이 학문화되면서 페미니즘의 영역이 제한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페미니즘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왜 머리 붙잡아 가면서 시몬 드 보부아르 책과 주디스 버틀러 책을 읽어야 하는지….

김주희 교수 | 아유, 보부아르, 버틀러 안 읽어도 돼. 중요한 건 ‘왜’ 페미니스트 지식을 알아야 하느냐, ‘왜’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내 경험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엄마의, 여성들의 경험은 기존의 지식 체계 안에서는 작은 이야기로 취급돼요. 역사 속에 훌륭하고 똑똑한 여성들은 늘 존재했지만, 한 명의 개별적인 천재로만 남아 있죠. 가문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흩어지는 거지. 이 지식이 상징적으로 축적되면 내 다음에 오는 여성은 다시 처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남성중심적 지식에 질문을 던지며 이것이 전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성주의 지식이 쌓이고 내가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가서 후배들을 맞이하는 노력이 있어야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역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은결 | 아, 여성주의를 하려면 공부가 필수적인지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요.

김주희 교수 | 이걸 정말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내놓을 것 같은데, 나도 내 경험에 기반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교실에서 배운 사람이고 교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

각해요. 지금은 교지 인터뷰 중이고,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게 이 교지인 거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 한다고. 왜냐?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니깐. 굉장히 맥락적인 답변이에요. 이런 환경에 놓이지 않은 이들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고. 대학은 배우는 곳이거든, 진짜 이 머리를 깨는 곳. 너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페미니즘을 공부해야 하는지 질문한다면 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켜켜이 쌓아 올린 지식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 지식 몰라도 돼’, ‘페미니즘은 내 의지만으로 돼’라고 말하는 건 이 계보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이야. 페미니스트들이 이미 한 논쟁과 역사를 통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건데, 매번 싸운다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지.

후퇴가 있어야 전진도 있는 법!

공부는 어렵다. 독서도 어렵다. 운동도 어렵다. 단단했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이야기들은 새롭고 신기하지만, 어느새 손에 잡힐 듯 말 듯 날아가고 만다. 세상엔 참 쉬운 게 하나 없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고 찬물을 급히 먹으려면 체하는 법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다음 손가락을 뜨도록 함께 식사하는, 차가워진 내 손을 주물러 주는 동지가 아닐까? 지식을 쌓고 이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혼자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노래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고되고 지친 날이 찾아올 때 내 옆의 누군가가 앞으로의 원동력이 되어 줄 테니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주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 정희진. (2023).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지금부터 막을 올립니다.

수습위원 변수정



▲ 10대 소녀팬과 조금영 배우 ©'영희아놀자' 블로그

언니, 저는 이제 시집은 다 갔어요. 정혼자에게도 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내 마음 조금도 이해 못 해줄 거면 이 결혼 나는 못 하겠다, 그렇게 말해버렸는걸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언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길을 걷다가도 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그때, 왜 저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셨나요? 단지, 제가 언니의 팬이어서요? 진심으로 저를 조금도 사랑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 차라리 연구생이 되겠어요. 언니 요번에 부산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가서 밥도 짓고, 수건도 빨고, 케이스도 부르며 언니 시중을 들겠어요. 무대에서 햇님 왕자와 달님 공주가 나눈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칠 수 있는 제 사랑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세요. 왕자를 사랑하는 것이 소녀의 숙명인걸요. 부디, 저를 언니의 연구생으로 받아주세요. 그럼, 당일에 뵙겠어요.

1963년, 봄. 명동 시공관 앞에서, 언니를 사랑하는 선화 올림

모든 건 무대에서 시작된다. 주인공은 언제나 소녀. 소녀는 왕자가 된다. 동시에 소녀는 공주가 된다. 소녀는 소녀를 사랑한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남는 건 소녀의 사랑. 붉은 피로 써 내려간 편지에는 영원을 맹세한 사랑이 가득하다. 치열한 칼싸움을 뒤로하고 턱 끝에 맺힌 땀방울과 입술 한 뼉 사이로 오가는 뜨거운 숨에 주목하시라. 자, 오늘 여기. 여성국극¹⁾의 막이 다시 오른다. 여성국극에 대해 몇 가지 사실만 알아둔다면 당신은 극이 시작하기 전에도 분명 팬이 되어있을 것이다.

여성국극은 창극²⁾의 일종으로 모든 배역을 여성들이 연기한다는 점에서 창극과 구분된다. 1948년, 국극은 판소리 '춘향전'을 각색한 <옥중화(1948)>³⁾를 무대에 올리며 시작되었다. 여성만의 공연을 기획하고, 주최한 것은 당시 국악 단체들의 남성 중심 운영과 폭력성에 반발한 박녹주 명창이 만든 '여성 국악동호회'였다. <옥중화(1948)>는 박녹주, 김소희, 박귀희, 임춘영, 김진진, 조금영 등 수많은 여성국극 주연 배우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국극 시대의 막을 올렸다. 이듬해인 1949년, 공연한 <해님과 달님(1949)>은 한국 전쟁 중에도 피란지에서 공연이 열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공연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여성국극은 대중문화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여성국극의 전성기를 함께한 <해님과 달님

1) 국극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극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국극'이라고 부른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국극'과 '국극',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2) 두 명의 소리꾼만 소리를 주고받는 판소리와 달리 창극은 극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소리를 주고받는다. 여러 명의 소리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판소리보다 극적인 성격이 부각된다.
3) 옥중화(獄中花). 변 사또의 수청을 듣지 않아 옥에 갇힌 춘향이를 의미한다. 판소리 춘향전을 창극으로 바꾸어 공연하였다.

(1949)의 인기는 *서울 시내에 아침에 해님으로 뜨고 저녁에 달님으로 진다*는 말까지 만 들어냈다. 1950년 대중은 국극과 사랑에 빠졌고, 여성국극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여성상에서 벗어난 국극을 평론가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여필종부(女必從夫) 해야 하는 여성이 감히 한 나라의 장군, 책사, 왕자를 연기할 수 있단 말인가? 경향신문은 “여자만의 국극이 탄생. 남자가 가열하지 않아도 여자만으로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자과자시(自誇自示)만은 좋으나 이리다간 여자만의 영화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간 여자만의 세상이 될까 걱정”된다며 말을 엮었다.⁴⁾ 평론가들은 여성국극이 화려한 무대 의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창극계에서도 여성국극은 예술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여성국극의 등장은 ‘창극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중들의 생각은 달랐다.

여성국극은 기존에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을 선보였다. 국극은 대중들이 즐겨왔던 창(唱), 전통춤, 전통음악, 재담(才談) 등의 전통 공연예술과 전쟁 이후 새롭게 유입된 오페라, 뮤지컬 등의 요소를 결합한 종합예술을 만들어냈다. 판소리 창법으로 익숙한 민족의 정서를 잇고, 연출, 음악, 대사를 통해 뮤지컬식 기법을 더했다. 국극은 도전을 꺼리지 않았다. 시스루의상을 입고, 주한미군 소유였던 미러볼 아래에서 시대상에 얽매이지 않는 대사를 뱉었다. 대중들이 국극을 사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국극은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시대 편견에 저항했고, 재미와 교훈도 잃지 않았다.

국극 무대의 막이 오르는 날이면, 명동 시공관(현재 명동예술극장)으로 고무신을 신은 소녀들이 모여들었다. 저마다 가슴에 꽃다발을 안고 각자의 스타를 기다리는 일명 ‘고무신부대’ 소녀 팬층이 생길 수 있었던 건 주로 니마이⁵⁾들의 활약 덕분이었다. 그들은 배역에 걸맞은 ‘미남’이었고, 그들의 연기는 소녀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니마이의 인기가 제일 많았다. 하지만, 소녀팬들이 니마이만 좋아한 것은 아니다. 빠지면 심심한 삼마이⁶⁾와 빠져서는 안 되는 가다가⁷⁾, 여성 역할 주연까지도 인기를 누렸다. 국극은 여성이 말할 수 있는 배역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의 성별을 오가는 연기를 볼

4) 김혜정 (감독). (2013). *왕자가 된 소녀들* [다큐멘터리]. 영화아놀자.
 5) 니마이는 남성 역할 주연 배우를 이르는 은어이다. 이들은 여성 역할 주연 배우보다 월등히 인기가 높았으며 능숙한 칼싸움 솜씨, 낮은 목소리, 미형의 외모를 갖추어야 했다. 대표적인 배우로 임춘영, 조금영, 이육천 등이 있다. 이몽룡, 로미오, 은달 등의 역할을 주로 소화했다.
 6) 삼마이는 남성 역할 조연 배우를 이르는 은어이다. 이들은 웃음을 담당하는 조연이었다. 보통 연극 대본 세 번째 장에 남성 희극 조연 배우 이름을 적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대표적인 배우로 김혜리, 조영숙, 이미자 등이 있다. 방자 등의 역할을 주로 소화했다.
 7) 가다가는 남성 역할 악역 배우를 이르는 은어이다. 여성 역할 주연과 남성 역할 주연의 로맨스를 방해하는 역할이다. 대표적인 배우로 이소자, 정은영, 이미자 등이 있다. 번 사또 등의 역할을 주로 소화했다.

수 있었다. 주로 니마이를 맡던 배우가 가녀리고 아름다운 여성 역할 주연을 맡기도 했으며, 니마이가 사정상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대신해 가다가나 삼마이, 여성 역할 주연 배우가 대신해서 무대에 올랐다.



▲ (좌) 1958년 '별하나'의 김경수(왼쪽)와 김진진(오른쪽) | (우) 1959년 조금영(왼쪽)과 박미숙(오른쪽) ©강유가람

소녀팬들이 배우의 외모만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배우들은 무대 밖에서도 자신이 맡은 배역을 이어갔다. 순종적인 여성상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박력 있는 남성을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은 소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소녀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를 따라서 머리를 자르고 바지를 입었으며 성큼성큼 걷고 박력 있게 행동했다.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국극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극의 매력에 빠진 소녀들은 국극단에 가입해 연구생⁸⁾이 되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언니의 곁에 붙어 시중을 들었다. 화장을 지우는 수건을 하얗게 빨아오거나 분장용 화장품이 잔뜩 들어있는 무거운 케이스를 들고 공연장을 따라다녔다. 때로는 팬이라는 장벽을 넘어 직접 무대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구생의 신분으로 말할 수 있는 배역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무대의 일부였다.

8) 국극단의 단원을 부르는 용어이다. 무대에 서는 선배에게 연기와 춤, 노래를 배운다. 연구생 중 일부는 배우의 시중을 듣기도 한다.

그들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스타 배우들의 팬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다. 배우들은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니마이로 활약한 조금영은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팬과 결혼사진을 찍었다. 결혼식을 빛내준 하객들 역시 국극단 배우들이었다. 배우들의 팬서비스에 소녀팬들의 사랑은 커져만 갔다. 일부는 여성과 이어질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움을 느껴 자살소동을 벌였으며, 닿을 수 없는 마음을 혈서로 표현하기도 했다.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국극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소녀팬들은 1960년대 여성국극 쇠퇴기에도 자리를 지켰다.



▲ 조금영 배우와 팬의 가상 결혼사진 ©여성국극제작소

1960년대 여성국극은 쇠퇴기를 맞이한다. 1962년 군사독재 시절, 정권은 국가적 위세를 높이고,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서구 열강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만의 ‘힘 있는 전통’을 선별하여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여성국극은 ‘힘 있는 전통’에서 제외되었다. 국극이 빠진 자리에는 남녀 혼성 창극 중심의 국립국극단(현재 국립창극단)이 세워졌다.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에도 여성국극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극이 쇠퇴하면서 배우들은 부모의 압박으로, 혹은 생계유지를 위해 남성과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은 약장수를 따라 변변치 않은 무대에서 공연하거나 요릿집에서 토막극을 했다. 일부는 영화계로 진출하였고, 국극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던 일부는 해외로 거처를 옮겼다. 서로에 대한 소식은 끊겼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여성국극의 흔적을 지웠다. 그러나 국극은 계속해서 나아간다. 남은 배우와 팬들은 ‘옥당 국극보존회’를 설립하고 여성국극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여성국극은 오늘날에도 덧붙여지고, 새롭게 쓰이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에게 전달된다. 여성국극 연구자이자 예술가인 정은영은 성별의 ‘수행’을 통한 인위성에 주목한다.

남성성은 흔히 남성의 몸에 있을 때, 자연스러우며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성국극에서 배우들은 ‘진짜’ 남성이 되기 위해 남성 의복과 분장, 남성적인 어투, 동작, 발성, 춤사위 등 남성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 결과, 배우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체화한다. 이처럼 남성을 연기하는 것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⁹⁾ 여성국극을 배경으로 한 웹툰 <정년이(2023)>의 서이레 작가 또한 왕자를 기다리던 공주가 직접 왕자가 되는 국극의 매력에 빠져 작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현대에 이르러 재해석되는 국극 무대는 성별 규범을 무너뜨리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된다. 국극단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모든 사랑이 그저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열린 제3회 드랙킹 콘테스트에서 올헤일은 페미니즘적이고, 퀴어적인 <드랙×여성국극 춘향전>을 선보였다. 해당 공연에는 여색을 밝히는 번 사또가 여성성을 시기하는 인물로 표현되고, 이성애 중심에서 벗어나 춘향과 향단의 성애적 서사가 이어진다. 국극이 남긴 방향성을 새로운 예술로 표현한 것이다.

9) 정은영. (2013). 여성국극, '남자' 되기의 정치. [http://www.sirenjung.com/index.php/text/--/2/\(2024.01.23. 접속\).](http://www.sirenjung.com/index.php/text/--/2/(2024.01.23. 접속).)



▲ 2019년 제3회 드랙퀸 콘테스트 (드랙×여성국극) 포스터 ©올해일

국극의 예술성은 계속해서 확장된다. 당신도 국극의 예술성에 반했는가? 축하한다. 새로운 소녀팬의 탄생이다. 꽃다발을 품에 안고, 새롭게 국극에 입문한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지난해 여름, 여성국극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국극제작소가 안산문화재단과 함께 공연한 <레전드 춘향전>에는 국극을 만든 1세대부터 이어나간 2세대, 3세대까지 모였다. 93년생부터 93세 배우까지 전부 모인 해당 공연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부활하는 여성국극’ ‘최초이자 마지막 공연’으로 홍보되었다.¹⁰⁾ 국극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관객으로 무대에 참여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레전드 춘향전>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여성국극제작소와 국극보존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것. 선배 팬들이 그러했듯이 무대 아래를 지키는 일이다. 자, 정말로 이제는 국극과 사랑에 빠질 시간이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기를.

10) 정혁준. 「힘든 시대 위로했던 여성국극...세대 넘어 부르는 '부활의 노래'」. 『한겨레』. 2023.08.26.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5868.html(2024.01.12. 접속).



▲ 여성국극 배우 조금영의 분장 모습 ©강유가람

(내레이션)

공주궁의 비밀 4막 5장.

그렇게 서동과 선화공주는 재회하는데..

과연 서동은 갖은 위협에도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선화공주는 서동과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곳에서 부활한 그들의 모험과 사랑 이야기.

자, 지금부터 막을 올립니다.

참고문헌

- 김경윤. 「국립극장 오르는 웹툰 '정년이'...작가 "무대화 꿈꾸며 작업했죠"」. 『연합뉴스』. 2023.01.09.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8040000005>(2024.01.31. 접속).
- 김다은. 「지금도 무대에 오르는 88세 명인의 꿈. 여성국극 맥 잇기」. 『시사IN』. 2023.11.1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63>(2024.01.25. 접속).
- 김서현. 「"이리 노나라 업고 놀자" 드랙과 퀴어로 상상의 춘향전」. 『여성신문』. 2019.12.03.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725>(2024.01.31. 접속).
- 김수현. 「역사책에 실리지 않은 여성국극, 예술로 부활하다」. 『SBS NEWS』. 2023.04.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4522(2024.01.31. 접속).
- 김지혜. (2012). 여성국극의 역사, 다시보기와 재현. <http://www.sirenjung.com/index.php/textbyothers/---/>(2024.01.23. 접속).
- 김해정 (감독) (2013). 왕자가 된 소녀들 [다큐멘터리]. 영화야놀자.
- 남민영. 「명동에는 '왕자가 된 소녀들'이 있었다」. 『에이코믹스』. 2015.06.12.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613>(2024.01.23. 접속).
- 도해원.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이 도령과 로미오」. 『아트인사이트』. 2021.06.10. <https://brunch.co.kr/@modernhan/34>(2024.01.23. 접속).
- 문상훈. 「퀴어가 당연한 세계에서 퀴어를 말하기 - <드랙x남장신사> 드랙퀸콘테스트」. 『연극in』. 2022.06.30. https://www.sfac.or.kr/theater/WZ020600/webzine_view.do?wtldx=12832(2024.01.31. 접속).
- 박주연.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부활"하는 여성국극」. 『일다』. 2023.08.16. <https://www.ildaro.com/9701>(2024.01.25. 접속).
- 이태훈. 「93세부터 93년생까지... 세대 넘어 돌아온 국극」. 『조선일보』. 2023.08.29. <https://www.chosun.com/culture-life/performance-arts/2023/08/29/EK73WIB565GODOYVCPB2TRHUMQ/>(2024.01.12. 접속).
- 정은영. (2013). 여성국극, '남자'되기의 정치. <http://www.sirenjung.com/index.php/text/--/2/>(2024.01.23. 접속).
- 정혁준. 「힘든 시대 위로했던 여성국극...세대 넘어 부르는 '부활의 노래'」. 『한겨레』. 2023.08.26.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5868.html(2024.01.12. 접속).

여자 중독

부편집장 조은결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장소, 사건은 허구입니다.

세상은 여자에 중독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자로 결부된다. 그 어떤 일에도 여자가 빠지지 않는다. 여자가 없으면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으니까. 세상은 여자를 이렇게나 사랑하지만, 여자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잠시만, 미안하다. 내가 무언가 착각한 것 같다. 혼란을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본질이라니? 여자에게? 여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란 불타는 사랑으로 고통받는 마음, 질투심에 빛나는 아름다운 녹색 눈, 길게 늘어뜨린 곱 좋은 머리카락, 우울하고 고달픈 심신을 달래 주는 풍만한 젖가슴, 다가가면 좋은 향기가 나는 부드러운 살갓뿐이다. 본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나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스스로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의 본질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 존 '아담' 스미스, 여자들을 사랑한다. 그것도 정말 많이.

여자에 중독된 사회

전광판에는 언제나 여자가 등장한다. 발랄한 음악과 함께 상기된 얼굴로 탄산음료를 내미는 이도, 열은 화장을 하고 주류를 들고 있는 이도 모두 여자다. 어디 청순하기만 할까, 야릇한 표정을 짓고 농밀한 동작으로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는 이 역시 모두 여자다. 분홍빛, 새빨간, 검은색의 립스틱을 바르는 것 역시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관찰하고 탐미하고 퍼뜨린다. 누군가의 관심에 의존해야만 하는 여자들을, 정주하지 못하고 붕 떠다녀야만 하는 그들을 구경할 뿐이다.

그날을 떠올리면 뱃속에서 심장이 쿵쿵거린다. 겨우 주먹만 한 장기가 온 힘을 다해 전신으로 피를 뽑는 모양이 그려진다. 아, 또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진눈깨비가 내린다. 한 달에 한 번 허락되는 외출을 감행한 날인데 하필이면. 오늘처럼 날씨가 좋지 않아도 길거리는 여자들로 꽉 차 있다. 굽 높은 하이힐은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선을 보여준다. 굴곡진 몸을 드러내는 옷은 눈을 땔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대화하거나 닿지 않아도 옆에만 있으면 몸이 배배 꼬이는 것 같다. 참 무서운 일이다. 당장 어제 저녁에 아담을 서른세 번 찌른 여자가 뉴스에 나왔는데도 여자들에게 사로잡힌다니. 날카로운 무기를 들었던 그녀도 저런 얼굴을, 저런 냄새를, 저런 목소리를 가졌을 것이다. 기관 안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가십에서 벗어나고 싶어 외출한 주제에, 여자들이 주는 자극에 목적을 잃어 버린다면 뭐가 다른 거지. 괜히 고개를 숙인다. 축축하게 젖은 도로는 밤이 되면 얼어 붙을 것이다. 낮게 빨은 한숨은 입김으로 변해 흩어졌다. '아담'처럼 우산을 들어 주는 여자 없이 바깥에 나온 아담은 쉬운 표적이 될 것이다. (최소한 기관의 관리자는 교육 시간마다 아담들에게 줄곧 그렇게 말해 왔다.)

“어디 가, 아담?”

“룸메이트한테 줄 이를 사려고요. 송곳니.”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아쁠싸, 질문에 무심코 대답하고 말았다. 어떤 제안이든 거절할 심산으로 고개를 드는 순간 서로의 시선이 교차했다. 그녀가 웃으며 걸음을 맞추자

연듯빛 머리카락이 찰랑거렸다. 저 미소는 가짜다. 알지만 사랑스러워 보였다. 아담은 그녀들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답변을 마치고도 쓸데없이 구체적인 정보를 덧붙인 데에서 드러났다. 이런 순간마다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기분이었다.

“내 걸 가져가는 건 어때?”

“하지만…….”

“진짜를 보여줄게. 물론 만지는 건 안 되고.”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바짝 붉은 숨소리에는 개의치 않고 내내 앞만 보던 '아담'이 놀란 얼굴을 할 만큼. 돌아보자, 그녀는 얼굴을 가린 막을 벗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가게에서는 홀로그램만 지겹게 띄워 두잖아. 이상했다. 그녀의 '진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흥미를 끌었다.

*

주머니 속에 손을 넣으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송곳니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 길고 더 날카로웠다. 손안에서 그걸 굴리며 세상엔 이렇게 생긴 송곳니가 세 개 더 남아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이걸 꼭 룸메이트만의 선물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여자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여자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여자가 없는 집은 집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여자가 만들어 준 음식만이 음식으로 인정받았고 여성이 다려준 셔츠만이 셔츠로써 의미가 있다. 아침에 마실 커피도, 매일 메는 가방도, 하얀 이도, 여자가 있어야 의미가 생겼다. 또한 여성에게 사랑받지 않은 인간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 여성의 사랑을 구매했다. 여성이 사준 셔츠, 여성이 짜준 도시락, 여성의 손톱, 머리카락 등 여성이 물어낸 모든 것은 상품이 되었다.

여자의 송곳니를 룸메이트에게 바로 전달한 건 아니었다. 과시가 아니라면 쓸모조차 없는 물건인데도 그냥 아껴 두고 싶었다, 잠시라도 손길이 닿는 곳에 두고 싶었다. 처음으로 쥐어 본 순간처럼 손안에 가둬 보면 생생하게 진동하는 느낌. 시야가 핑 돌

고 머리가 올리는 걸 단순한 쾌감으로 치부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트라우마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며칠 전, 변변한 포장도 없이 불쑥 전해 주었는데도 림메이트는 아주 감격한 것 같았다. 받은 걸 돌려주고 싶었는지 나를 몇 번 챙겨 주기도 했다. 보답이랍시고 타 준 핫초코가 유난히 달게 느껴졌다. 평소에 너무 인색하게 굴었다. 아무쪼록 바뀐 태도가 썩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걸 아담의 일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대신 보호인이 있었으니까.

모든 아담은 원한다면 보호인을 가질 수 있다. 이 주 전의 외출은 감정적 충격을 남겼기에 '아담' 역시도 이제는 보호인을 두게 되었다. 물론 가장 좋은 등급은 아니었지만, '아담'이 바라는 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의 비밀을 침묵할 기능뿐이었다. 어느샌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급히 보호인을 호출한다. '아담'은 빠르게 달려온 보호인의 손, 차가운 금속성의 그것을 역세게 붙잡는다. 도망쳐야 한다.

“그 여자가 전부를 드러냈어. 전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죽인다. 보호인은 새까만 눈동자로 그런 '아담'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다. '아담'의 지시 전까지 징후를 살피는 것이다. 그의 매끄럽지 않은 눈감박 입은 짹짹하는 소리를 낸다.

“벌거벗었어…….”

선물을 사러 갔던 날, 돌아오는 길에 지나온 중심지에서 맞닥트린 일이었다. 한 여자가 인파가 몰리는 길목에 서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몽땅 내보인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감싼 막을 떼어내고 자신이 된 그녀는 무어라 외쳤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거리에 몇 안 되는 아담들의 존재를 확인한 후 울부짖었으니, 아마 '아담'도 그녀의 계획 속 청자였을 테다. 기대에 부응하진 못했지만,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다. 스스로를 그렇게 훼손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완벽한 '막'에 덮여 있지 않은 누군가의 모습도. '아담'은 영문도 모르고 그녀에게로 달려갔으나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막을 다시 입혀 주어야 하나? 하지만 손을 대도 괜찮을까? 이것을 벗어던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애초에 우리는 달아도

괜찮은 존재들일까? 시신경이 망막과 뇌를 연결한다. 익숙했던 거리의 풍경은 낯선 스트레스로 치환되어 신체를 각성 상태로 이끈다. 그 광경이 기억 깊은 곳에 새겨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아담과 충격을 공유할 수는 없었다. 아담은 세계의 축이 되는 존재로서 옳고 아름다운 것에만 둘러싸여 자라야 한다. 근래 기관 밖에서는 매주 흥흥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와중에 이 일을 '아담'이 직접 목격했다는 걸 기관에서 알게 된다면 외출이 아예 금지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원치 않는 회상으로 '아담'은 몸을 떨고 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간혹 숨을 잘못 들이 키기도 한다. 보호인은 '아담'의 생체 신호를 살피지만, 주변 환경에는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그의 메커니즘에 따르면 이러한 자율신경계 증상은 접촉으로 해결된다. 접촉을 통해 체온은 상승하고 불안정한 전기신호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아담은 사회와 격리되어 자라나기에 가족도 부모도 친구도 없다. 연결도 결여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사실 병통과 폐단은 사회에 있다. 이 사회는 사랑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며, 까닭은 '분열시켜 지배하라'는 어떤 격언처럼 그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는 서로를 아낄 수 있는 형태에서 자꾸만 멀어진다. 보호인은 단단한 팔로 '아담'을 끌어안는다. 말하는 것 또는 손을 잡는 것, 하다못해 입을 맞추는 것까지도 이제는 큰 효과가 없다.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등을 토닥이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다. '아담'의 거칠었던 호흡은 차츰 가라앉고, 제 뭇을 다한 보호인은 '아담'의 잠에 침투한다. 감각, 정서, 사고, 행동. 전부 그에게는 금지된 것들이다.

꿈을 접거한 그는 가장 안쪽 깊은 곳에 마취된 핵을 건드린다.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

여자는 모두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자는 확실히 중독성이 있으니까. 여자의 머리 카락, 눈썹, 손목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여자는 이런 여자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여자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이들만 여자로 인정받는다. 여자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이들이 여자를 검열하고 기준을 세웠다.

꿈속, '아담'은 자신의 일생을 되짚어 돌아가는 중이다. 헤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곧 보호인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몸이 정말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담은 느낄 수 있다. 머뭇거리지 않고 걸음을 내딛다 보니 한 여자가 보인다. 아담은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는 또다시 막을 벗는다. 이상하리만치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다. 의례와도 같은 그 동작을 끝까지 살피고 '아담'은 다시 걷는다. 푸르른 하늘과 뭉게구름 아래 사람들이 들뜬에 앉아 있다. 그들의 온기, 체취, 각기 독특한 음성, 어조, 손끝의 모양을 느낀다. 돌아보는 하나하나의 다른 얼굴과 이름들. 누구도 막을 입지 않았다. 아담은 놀라 눈을 뜬다. 수평선을 따라 길게 늘어진 노을이 하루가 저물었음을 알려준다. 너머로 기우는 태양의 뚜렷한 윤곽, 바람을 타고 조금 냄새가 흠어진다. 밝은 연둛빛이 눈에 띈다. 해 질 녘 해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색이다. 송곳니를 팔았던 그 여자다. 알게 된 순간, 내려다본 손안에는 그녀의 송곳니가 돌아와 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몰려든 먹구름 속에선 번개가 친다. 가장 큰 날개를 가진 새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가 송곳니를 실어다 주길 바라며 바다를 향해 힘껏 던진다. 아담은 놀라 눈을 뜬다. 깜깜히 저문 밤하늘을 뒤로 빛나는 별들은 주단 위 수놓은 진주. 거세당한 줄로만 알았던 본능이 깨어난다. 북극성을 찾고 나면 시야가 차차 어두워진다(溶暗). 다른 아담을 서른세 번 찌른 여자가 바로 저 골목에 있다. 시선이 섞인다. 그녀에게로 다가간다.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들의 생각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담은 놀라 눈을 뜬다.

애처로이 가물고도 맹렬하게 갈라진 대지에서 분출된 용암과 함께 어머니 가이아의 진언이 들려온다.

그것은 꿈이 아니다.

'아담'은 놀라 눈을 뜬다.

'아담'은 단 한 번도 꿈을 꾀 본 적이 없다. 그에게 수면이란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일과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매일의 규칙적인 여섯 시간 동안 압전된 시야는 그 어떤 일도 꿈꿀 수 없게 만든다. 눈을 뜨고 있을 때조차 말이다. 그러나 넘칠 만치 취해본 첫 숙면 속에서 아담은 새로운 세상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보호인의 손을 잡고 함께 하게 된 그곳은 눈비로 흐릿한 잿빛의 도시가 아닌 다채로운 대지였다. 마주 보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눈은 다른 모양으로 휘어지고 눈가의 주름은 또 다르게 잡힌다. 누군가는 웃을 때 패는 볼우물을 가졌고 누군가는 웃을 때 시원하게 드러나는 잇몸을 가졌다. 오히려 그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게 했다. 정체를 규정하는 일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아담'은, 아담은 안다.

부록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편집장 조현빈

01.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집 밖에 나갈 때면 텀블러를 챙긴다. 마트에 갈 때는 에코백을 챙기고, 식탁에는 고기반찬을 줄였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분리배출, 실내 적정온도 유지가 지구를 구한다고 외친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다.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자꾸만 축소하고, 가덕도 앞바다에는 신공항을 짓는다. 삼척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섰다. 해당 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1억 2천만 명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¹⁾ 우리나라 전 국민이 노력해도 역부족인 셈이다.

정부의 캠페인은 여전히 개인을 겨냥한다. 마치 내가 기후변화의 책임자라고 외치는 것 같다. 물론 나는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같은 양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21년 기준 국내기업 73곳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에 달한다.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은 무려 전체 배출량의 46%이다.²⁾ 기업이 기후 위기의 주범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재된 산업계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3.1% 낮은 11.4%이다. 정부는 기존의 목표가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변명한다. 전환·수송·농축산 등 다른 업계는 탄소배출을 평균 3-40% 감축해야 하는데도 말이다.³⁾ 정부가 물질적 이득에만 매몰되어 기업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개인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며, 지구와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1) 씨리얼. (2021.09.09.). "텀블러 쓰세요!"가 정부와 기업의 눈속임이라고? | 씨리얼 사회탐구 [영상]. 유튜브. [https://youtu.be/hNPeKXgAD5k?si=acrS0Dy4anCHADOD\(2024.01.30. 접속\)](https://youtu.be/hNPeKXgAD5k?si=acrS0Dy4anCHADOD(2024.01.30. 접속)).
2) 임병선. "[온실가스 100만톤클럽①] 73곳이 한국 탄소배출의 75%". 『뉴스펜권』. 2023.02.1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5\(2024.01.30. 접속\)](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5(2024.01.30. 접속)).
3) 권우현. "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한겨레』. 2021.12.16.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2174\(2024.01.30. 접속\)](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2174(2024.01.30. 접속)).

02. 자연재해가 아니다.

2023년 7월 13일 충북 청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4일 오후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15일 미호천교 부근의 '임시 제방'이 붕괴하며 지하차도에 막대한 강물이 유입됐다. 언론은 참사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도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망자 11명, 부상자 9명이 확인됐다. (중략)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16일)부터 모레(18일)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제주도는 모레부터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 판단 후 안전을 위해 이웃과 함께 신속한 대피 및 피난하는 등 즉시 안전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⁴⁾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례적인 강수량이 만들어 낸 영락없는 '자연재해'였다. 적어도 정부의 입장은 그랬다. 그러나 오송에 다량의 비가 내릴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된 사실이었다. 더구나 참사가 난 지하차도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 사고가 예견된 저지대 지역이다. 사고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홍수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관할구청과 경찰청 중 그 어떤 기관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교통통제나 지하차도 출입 통제도 없었다.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한 충북소방본부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⁵⁾ 제방 자체도 문제다. 시공 건설청에 공사 편의를 위해 '임시 제방' 높이를 29.78m로 낮췄기 때문이다. 제방의 법정 높이는 30.58m 이상, 사고 당시 오송의 최고수위는 29.87m로, 법정 기준만 지켰다면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⁶⁾ 결국 해당 참사를 불러온 건 자연이 아닌 인간이다.

더불어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지진, 산불, 한파, 가뭄과 산사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 산을 깎고 숲을 태워 공장을 세우는 기업이, 이를 묵인하는 정부가, 작고 큰 징조들을 무시하며 무리한 발전을 이끈 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다. 결국 '자연재해'라는 호명은 사회의 재난과 재해에 책임지지 않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책임자가 없는 재난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지만 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관은 없다.⁷⁾ 경북 영덕군 강구면은 2018년부터

4) 정봉오. "집중호우로 38명 사망...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1명 사망". 『동아일보』. 2023.07.1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16/120263647/1\(2024.01.30. 접속\)](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16/120263647/1(2024.01.30. 접속)).
5) 이대건. "오송 참사' 왜 인재인가?...임시 제방·3차례 경고·사각지대". 『YTN』. 2023.07.18.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700015568\(2024.01.30. 접속\)](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700015568(2024.01.30. 접속)).
6) 최예린·오윤주. "[단독] '오송 참사' 법정기준보다 0.8m 낮은 등...인재 재확인". 『한겨레』. 2023.07.24.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388\(2024.01.30. 접속\)](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388(2024.01.30. 접속)).
7) 손현수. "이상기후 재난 피해 커지는데, 예측·예방기구가 없다". 『한겨레』. 2023.10.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3718\(2024.02.16. 접속\)](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3718(2024.02.16. 접속)).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재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이유로 책임에서 빠져나온다.⁸⁾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정부 역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라는 변명 앞에서 피해를 관조한다.

03. 사회는 보지 않는다.

사회는 기후 문제를, 그리고 기후 문제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은 기후 위기를 다루지 않는다. 과학 교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의 형상만 언급하며 기후 위기의 주범을 감춘다.⁹⁾ 개인의 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낙관을 반복할 뿐이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피해의 양상을 알지 못한다.

피해는 수직적이다. 재난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폭염과 한파로 홀리스와 야외노동자가 죽었고, 홍수로 쪽방촌과 반지하 거주민이 죽었다. 가뭄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농민과 빈민이 가장 먼저 위험에 내몰린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라'는 정부의 대비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건 극심한 기후변화를 버틸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뿐이다. 실내에서 노동하거나 쉴 수 있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터전이 있고, 충분한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다. 이 불평등한 구조는 재난 상황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과 예비책이 없었다. 서울시는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반지하 퇴출' 작업을 진행했다. 반지하 건축을 제한하고,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지하 가구가 이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주거 보조비는 최대 월 20만 원에 불과하다.¹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힘겹게 집을 구한다 한들 6년 후에는 또다시 반지하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지원책에 살고 있는 곳을 떠날 수 없지만, 건축 제한과 철거 계획에 머물 수도 없는 기이한 구조다. 비대칭으로 구성된 분배의 문제, 지상층에서 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해당 정책은 그 어떤 근본적 변화도 이끌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기를 거부하고, 들기를 거부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에는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원칙이지만 민간위원은 32명으로 축소되었고, 대학 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기업인 등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¹¹⁾ 노동자, 중소기업인, 농어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노인, 빈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후 위기 최전방의 피해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를 배제하는 탄중위는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적 수단에 그칠 뿐이다.¹²⁾

시민에게 기후 문제의 책임을 요구하던 정부는 정작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비명과 고발은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기계음에 파묻혀 소멸한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구조 속에서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책임자와 피해자는 은폐되고, 문제는 축소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을 막을 수는 없어도, 자연을 직면하고 재난에 대처할 수는 있다. '눈부신 성장'이라는 발전 신화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기후변화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 매년 불타 사라지는 숲, 극단적인 이상기후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목숨을 구하자는 얘기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다.

참고문헌

- 권우현. 「기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한겨레』. 2021.12.16.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2174\(2024.01.30. 접속\)](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22174(2024.01.30. 접속)).
- 박다솔. 「탄중위 해체」가 기후정의의 시나리오. 『참세상』. 2021.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86\(2024.01.30. 접속\)](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86(2024.01.30. 접속)).
- 반기용. 「재해에서도 차별받는 '지방」. 『경향신문』. 2020.08.2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8221620001\(2024.02.16. 접속\)](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8221620001(2024.02.16. 접속)).
- 손현수. 「이상기후 재난 피해 커지는데, 예측·예방기구가 없다」. 『한겨레』. 2023.10.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3718\(2024.02.16. 접속\)](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3718(2024.02.16. 접속)).
- 씨리얼. (2021.09.09.). "텀블러 쓰세요!"가 정부와 기업의 눈속임이라고? | 씨리얼 사회탐구 [영상]. 유튜브. [https://youtu.be/hNPeKXgAD5k?si=acrS0Dy4anCHadOD\(2024.01.30. 접속\)](https://youtu.be/hNPeKXgAD5k?si=acrS0Dy4anCHadOD(2024.01.30. 접속)).
- 이대건. 「'오송 참사' 왜 인재인가?...임시 제방·3차례 경고·사각지대」. 『YTN』. 2023.07.18.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700015568\(2024.01.30. 접속\)](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80700015568(2024.01.30. 접속)).
- 이인·류도성. 「로드맵도 비전도없는 기후교육 미래세대는 운다[영상]」. 『노컷뉴스』. 2022.12.01.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850\(2024.01.30. 접속\)](https://www.nocutnews.co.kr/news/5857850(2024.01.30. 접속)).
- 임병선. 「온실가스 100만톤클럽①」 73곳이 한국 탄소배출의 75%. 『뉴스평권』. 2023.02.17.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5\(2024.01.30. 접속\)](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5(2024.01.30. 접속)).
- 정봉오. 「집중호우로 38명 사망...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1명 사망」. 『동아일보』. 2023.07.1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16/120263647/1\(2024.01.30. 접속\)](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16/120263647/1(2024.01.30. 접속)).
- 조희제. 「서울시 양천구,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면 최대 1440만원 지원」. 『이코노뉴스』. 2023.11.20. [https://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691\(2024.01.30. 접속\)](https://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691(2024.01.30. 접속)).
- 진보당. (2022) 「당사자 배제, 원전육성」을 위한 탄중위는 필요없다!」. 『진보당』.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8052\(2024.01.30. 접속\)](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8052(2024.01.30. 접속)).
- 최예린·오윤주. 「[단독] '오송 참사' 법정기준보다 0.8m 낮은 둑...인재 재확인」. 『한겨레』. 2023.07.24.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388\(2024.01.30. 접속\)](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388(2024.01.30. 접속)).
- 12) 박다솔. 「탄중위 해체」가 기후정의의 시나리오. 『참세상』. 2021.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86\(2024.01.30. 접속\)](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86(2024.01.30. 접속)).

편집후기

삼

물음표를 놓던 자리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리를 지켜준 수수와 환에게,
빈칸을 채워준 모든 의미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客

후회는 있어도 미련은 없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금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준비하는 일이
이제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이 좋아요.

대파

읽을 만한 글을 쓰는 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만나는 일은 늘 괴로웠죠. 아직은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아직 겨울입니다. 봄이 오는 그날 만납시다.

수칼칼

스머프 동산 살구나무 옆에 피는 벚꽃이 제일 예뻐요.
근맥 읽는 사람만 아는 비밀로 합시다.

해파리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절망이 와도 무너지지 말고 이겨내길.

싱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망설여져요..

85호 결산보고

수입	
84호 이월금	2,113,319
23-1 교지대비	7,115,000
예금이자	3,643
합계	9,231,962
지출	
근맥 85호 제작비	3,409,500
원고료	704,760
정기회의비	429,700
비품비	131,830
주민세	62,500
사례비	117,000
배송비	70,400
합계	4,925,690

「근맥」은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교지대비로 제작됩니다.
 근맥의 재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geunmaek@duksung.ac.kr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수습위원 모집

모집기간

3/4 ~ 3/25

지원자격

23, 24학번 재학생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지원서 _ <https://brunch.co.kr/@geunmaek> (QR코드 가능)

제출 이메일 _ geunmaek@duksung.ac.kr



제출 양식

근맥지원서_이름 (ex. 근맥지원서_김근맥)

혜택

1. 원고료 및 교내 장학금
2. 넓고 쾌적한 편집실
3. 교내 독립언론기구의 사랑스러운 구성원
4. 4회 이상의 출판 경험

선발과정

지원서 제출-논술시험-대면 면접

지원자 전원이 모든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의

geunmaek@duksung.ac.kr

갑진년 봄, 여든여섯 번째 이야기 마침